[DDP디자인페어2019]
소상공인을 위한 디자인 아카이브

[DDP Design Fair 2019]
Design Archive for Small Business

목차

1. DDP디자인페어 : 소상공인을 위한 디자인 9

2. 서울 도심의 제조산업 : 서울의 소상공인 13

3. 서울 디자인 트렌드 :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자인 트렌드 19

4.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 트렌드 아카이브 31

5. 더 쇼케이스 : 콜라보레이션, 미래를 위한 디자인 신화 만들기 119

6.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 디자인을 입히다 125

7. 디자이너 X 창신동 장인 : 그래픽 패션 141

8. DDP디자인페어 프로젝트 진행보고 145

9. DDP디자인페어, 함께한 사람들 153

340
320

DDP디자인페어 :
소상공인을 위한 디자인

DDP Design Fair:
Design for Small Business

'DDP디자인페어'는 '소상공인'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소상공인'의 사전적 정의는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NEW 경제용어사전)이며 법적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으로 규정'(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DDP디자인페어'는 법으로 규정된 '소상공인'만을 위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체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소상공인과 작은 법인 형태인 '소기업(small business)'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0%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며 전체 산업 종사자의 40%인 500만 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본인 외 1명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는 전 인구의 25%인 1,000만 명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풀뿌리'이자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은 고용을 창출·유지하며 우리나라 인구 25%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산업생태계는 물론 사회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DDP디자인페어'는 디자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치 '남녀한쌍'을 만들어 내는 '결혼중개업'과 같은 일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디자인이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디자인이란 좋은 것, 세련된 것, 유행에 뒤지지 않는 것,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 「소자본 창업 및 소상공인의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은 생계영위 목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매우 영세'하며, '소규모 자금으로 창업'하며, 그나마 '남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평균적 조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브랜드 디자인, 디자인 사고, 디자인 경영 등 디자인시대를 관통하는 디자인 전략이란 멀고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일 디자인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동시대 문화 트렌드라면, 사회적 공감의 또 다른 방식이라면, 디자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이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풀뿌리'이자 '실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디자인의 '의미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DDP디자인페어'가 '소상공인'을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주력 상품을 디자인해 주거나 조언해 주는 디자인 지원사업은 일방적이며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긍정적인 '의미효과'에 대한 지속가능한 공감·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DDP디자인페어의 열쇠말인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은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한 쌍의 커플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의 지속'을 유지하는 것처럼 'DDP디자인페어'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만남과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과 '관계의 지속'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상품, 디자인 브랜드로 완성되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는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는 대부분 '소상공인(small business)'이며 디자이너의 비즈니스 모델은 디자인 서비스 용역입니다. 3차산업 혹은 서비스산업의 핵심개념인 '용역'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뜻합니다. 디자인의 경제적 '대가'가 무형의 비경제적 봉사활동으로 종종 오인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디자인이 '서비스'로 오해되는 이유, 곧 '갑'에 당연히 제공되는 '을'의 비경제적 서비스로 오해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의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디자이너의 권리는 생략됩니다.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한계이자 디자이너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근본적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은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의미하지만 또한 디자인의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공정한 나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은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 판매에 따른 디자인 로열티(design royalty)를 디자이너에게 지불합니다.
'소상공인 X 디자이너'는 '갑 X 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고(Dream), 만들고(Design), 누리는(Play)' DDP디자인페어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도심의 제조산업 : 서울의 소상공인

Manufacturing Industry in Seoul: Small Business in Seoul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대부분 서울 도심의 제조업체들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은 '디자인'의 필요(needs)가 상대적으로 절실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산업형태별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소재형 제조업'은 원재료의 변형을 통해 상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 등을 만드는 형태로 최종산출물은 상품의 재료 또는 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가공조립형 제조업'은 소재 및 부품 등을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주요 소비층이 소비자보다 사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관련형 제조업'의 최종산출물은 소비재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요 소비층은 사업체보다 소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표준산업분류			
기초소재형	13	섬유제품	21	의약품
	16	목재 및 나무제품	22	고무 및 플라스틱
	17	펄프 및 종이	23	비금속광물
	19	석유정제	24	1차 금속
	20	화학제품		
가공조립형	25	금속가공	29	기계장비
	26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30	자동차
	27	의료정밀	31	기타 운송장비
	28	전기장비		
생활관련형	10	식료품	15	가죽 및 신발
	11	음료	18	인쇄 및 기록매체
	12	담배	32	가구
	14	의복 및 모피	33	기타 제조업

[제조업의 분류]
출처 : [2013 광공업생산연보] 통계청,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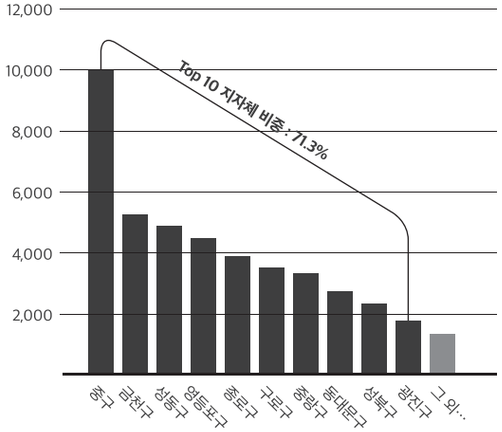
DDP디자인페어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의 최종 제품들은 대부분 생활관련형 상품들입니다. 서울시 제조업 산업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형태는 생활관련형 제조업으로 36,745개이며 그 비중은 전체 제조업에서 절반을 넘는 60.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공조립형, 기초소재형 제조업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제조업 사업체는 61,218개입니다.
서울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5명으로 전국 평균 10명의 50% 수준입니다.

[단위 : 개, %]

구분	서울			전국		
	사업체	비중	순위	사업체	비중	순위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958	24.4	1	25,135	6.3	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208	13.4	2	18,659	4.7	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5,420	8.9	3	66,139	16.7	1
식료품 제조업	5,224	8.5	4	56,267	14.2	2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5,127	8.4	5	22,113	5.6	5
기타 제품 제조업	5,094	8.3	6	18,325	4.6	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99	5.4	7	44,148	11.1	3
전기장비 제조업	2,438	4.0	8	20,979	5.3	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32	4.0	9	5,856	1.5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20	3.5	10	11,786	3.0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34	2.8	11	13,881	3.5	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62	2.2	12	21,770	5.5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99	1.5	13	6,878	1.7	17
가구 제조업	797	1.3	14	12,622	3.2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540	0.9	15	9,818	2.5	15
1차 금속 제조업	406	0.7	16	8,151	2.1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99	0.7	17	10,910	2.7	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54	0.6	18	6,620	1.7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7	0.3	19	10,465	2.6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1	0.2	20	958	0.2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5	0.1	21	3,897	1.0	20
음료 제조업	31	0.1	22	1,444	0.4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0.0	23	331	0.1	23
담배 제조업	1	0.0	24	19	0.0	24

[서울 및 전국의 제조업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 및 순위]
출처 : [2014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5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들은 중구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서울 제조업의 메카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제조업체의 주요 집적지는 중구, 금천구, 성동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서울시 제조업체 58,551개 중에서 가장 많은 총 9,959개의 업체가 중구에 입지해 있어 서울시 전체 제조업체의 17.0%가 중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금천구 4,774개, 성동구 4,455개, 영등포구 4,250개, 종로구 3,948개, 구로구 3,633개, 중랑구 3,290개, 동대문구 3,108개, 성북구 2,435개, 광진구 1,895개 순으로 제조업체가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금천구·성동구를 포함하면 제조업체 수 상위 10개의 자치구가 전체 서울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에 달합니다.



[서울 자치구별 제조업 사업체 수]
출처 : [2014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5

서울시 자치구별로 보면 자치구별로 우세한 업종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자치구 업종분포 현황을 분석하면, 서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류봉제)'이 총 15개 자치구에서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중구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구로구와 영등포의 2개 자치구에서, '식료품 제조업'은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서, '기타 제품 제조업'은 강동구에서 가장 우세한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	표준산업분류(소분류)
종로구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중구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성동구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동대문구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곡물가공품·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중랑구	봉제의복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도봉구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마포구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구로구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고무제품 제조업 / 1차 철강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금천구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영등포구	금속 주조업 / 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관악구	둥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서울 자치구별 밀집 제조업종 현황]
출처 : [2014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5

서울의 도심 제조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확장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 융합 흐름에 힘입어 도시형 제조업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지역 고용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희소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심산업이 도시의 매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의 도심산업은 도시의 창조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DDP디자인페어의 열쇠말인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은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이 서울의 '경제 X 사회 X 문화'를 융합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 디자인 트렌드 :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자인 트렌드

Seoul Design Trend: Design Trends for Small Business

트렌드(trend)는 특정한 시대적 경향이나 사회적 동향을 말합니다. 문화적 추세 혹은 단기간 지속되는 유행과 변화 혹은 특별한 현상을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자면 트렌드란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고 마음을 주고 있는 유행이나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현상을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은 '콜라보레이션'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소입니다. '트렌드'에 대한 이해 없는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은 불가능합니다. '트렌드'란 '시대의 경향, 흐름, 추세, 변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유행에 뒤처져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맥락이 없는, 이야기가 부재한, 조악한, 안 팔리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동시대 '트렌드'가 반영되지 못한 것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의 실패요인'은 자본의 열악함과 함께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트렌드 정보 결핍이 중층적으로 작용합니다.

논문 「소자본 창업 및 소상공인의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사업실패의 핵심 요인을 열악한 '자본'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성공'은 풍부한 자본으로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서울 산업생태계의 '풀뿌리'이자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트렌드 정보는 자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트렌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소상공인이 대면한 다양한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방식입니다. 트렌드 정보는 이미 중기업, 대기업 등 동시대 산업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트렌드 정보에 대한 이해는 소비자의 다양하며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전략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은 저서 『메가트렌드(megatrends)』에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를 메가트렌드라고 말합니다. 메가트렌드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 사회, 세계적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트렌드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트렌드는 특정한 유행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시대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트렌드에 대한 무지 혹은 역행하는 디자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 이유입니다. 디자인은 트렌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사람들의 삶과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예측하는 일입니다.

'만일 트렌드를 예측·반영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면!' 모든 비즈니스의 꿈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트렌드 분석과 전망'에 대한 무수한 보고서와 연구논문이 생산되지만 모두 '애매모호'하며 '선문답' 같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20년 전망과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멀티 페르소나 (Me and Myselves)**
- **라스트핏 이코노미 (Immediate satisfaction)**
- **페어 플레이 (Goodness and fairness)**
- **스트리밍 라이프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
- **초개인화 기술 (Technology of hyper-personalization)**
- **팬슈머 (You're with us 'fansumer')**
- **특화생존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 **오팔세대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 **편리미엄 (Conveneience as a premium)**
- **업글인간 (Elevate yourself)**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결론은 2020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까탈스러운, 혹은 까탈스러워져만 가는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사회가 번성하고 진보함에 따라 더욱더 까탈스러워지고 있으며, 이런 소비의 트렌드를 예측·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멀티 페르소나

Me and Myselves

소비자 한 사람이 가진 100개의 페르소나(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향을 지칭하는 용어)를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00명의 소비자에게는 100개의 큰 취향이 있고, 현대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이 취향을 찾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하기 원합니다. 선문답 같은 전망과 키워드도 어렵고 해석 또한 쉽지 않지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라스트핏 이코노미

Immediate Satisfaction: the Last Fit Economy

마지막 순간의 고객 만족을 최적화한다는 뜻입니다.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어떻게 배송돼 고객의 마지막 접점을 만족시키는지가 상품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구독서비스, 따릉이 등이 주목 받는 것도 트렌드에 따른 변화입니다.

페어 플레이

Goodness and Fairness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막내라도 자신의 기여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하며, 가사 노동은 구성권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도 상품 자체뿐 아니라 그 브랜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중시합니다.

스트리밍 라이프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음악 파일 등을 내려 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물 흐르듯 재생하는 기술인 스트리밍처럼 점차 집과 가구, 차 등을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는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입니다. 욕망은 많지만 충족할 자원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점차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빌려 쓰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기술

Technology of Hyper-personalization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해 고객의 요구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식, 5G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개개인의 개별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적절한 순간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10개, 100개의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슈머

You're with Us, Fansumer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동시에 간섭과 견제도 하는 신종 소비자를 말합니다. 팬심을 넘어선 팬슈머의 성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연예도 마케팅도 정치도 그리고 비즈니스도 팬슈머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고객과 함께'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팬슈머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지와 참여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특화생존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고객만족이 아니라 '초'고객만족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차별화를 넘어 특화된 제품이 살아 남는다는 '특화생존' 전략이 절실합니다. 우리 회사와 제품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보다 확실하게 관심 있는 특정고객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오팔 세대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오팔(OPAL)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이며, 동시에 '58년생 개띠'의 '오팔'을 의미합니다.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5060 세대가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답게 여전히 왕성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여가 생활도 활발히 즐기면서 젊게 소비함으로써 정체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편리미엄

Convenience as a Premium

가성비가 좋은 시대를 뛰어넘어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편리성이 프리미엄이 되는 '편리미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1인 가구,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 부부 등이 주된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심부름서비스, 오디오북, 스킵케어 등 '편리미엄'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글인간

Elevate Yourself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스펙을 쌓기보다는 어제보다 발전한 나를 만드는 데 변화의 방점을 찍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중시하며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비일상보다 일상에서 소확행을 신봉합니다. 이들이 2020년 소비자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품은 이러한 2020 소비 전망 및 키워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며 '선문답'같은 트렌드 예측 속에 다양한 답들이 숨어 있습니다.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해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모든 트렌드 분석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컬러 트렌드'는 친절하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매년 12월 '팬톤 컬러 연구소(PANTONE color institute)'는 다음해 컬러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팬톤이 예측한 컬러가 지구촌 유행 컬러가 됩니다. 2018년 12월 팬톤은 2019의 컬러로 '리빙코랄(Living Coral)'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2019년 지구촌의 패션, 인테리어, 그래픽, 산업 디자인 등의 주된 컬러가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매년 컬러트렌드 정보만이라도 수집하고 이해한다면 비즈니스 전략 만들기는 조금은 쉬워질지 모릅니다.

'팬톤 컬러 연구소'는 2020년 컬러 트렌드를 2019년 12월 발표합니다. 팬톤이 예측한 컬러는 2020년 지구촌의 유행 칼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 2020년 컬러 트렌드 정보를 2019년 12월에 인지한다는 것은 유행 컬러를 반영한 신제품 생산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신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미리 컬러 트렌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 정보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집·확산됩니다. 자체 트렌드 연구소를 가진 기업들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설 트렌드 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디자인 잡지,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인터넷, SNS, 심지어 입소문을 통해 트렌드는 수집되고 확산됩니다.

[2019년 팬톤 올해의 컬러 '리빙코랄']
출처 : www.pantone.com

[2019년 이전, 대량 생산되는 2019년 유행컬러 '리빙코랄'
컬러 트렌드는 반영 제품의 '선생산'을 위해 이전 '트렌드 정보'로 유통된다.]
출처 : tdesignsource.com

[2019년 지구촌 일상의 유행 컬러가 되는 '리빙코랄']
출처 : www.thestylingcloset.com

컬러 트렌드는 친절합니다. 온오프라인 잡지, SNS, 뉴스 등 컬러 트렌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쉽습니다. 2020년의 컬러 트렌드는 사전에 결정되며 지구촌 제조업은 이미 2020 컬러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을 끝냅니다. 사실 대부분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컬러 트렌드는 만들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구촌 산업구조는 '대량 선생산 대량 후판매'라는 어쩔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선생산'을 위해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품은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나 소비자 트렌드 연구자들은 이미 특정 상품을 디자인할 때 성공을 전제한 디자인을 기획합니다. 실패를 전제한 디자인은 없습니다. 좋은 상품 혹은 가치 있는 상품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가치 생성 단계를 디자인 과정에서 미리 거칩니다.

물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찰나의 유행과 같은 대중적인 트렌드를 싫어합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대기업 상품보다 조금 더 개성이 강한 혹은 차별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 역시 '트렌드'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트렌드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트렌드 정보는 새로운 상품 디자인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소재 트렌드, 컬러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 등 트렌드에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상품의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물론 특정한 시장을 위해 트렌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새로운 상품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전략이든 후자의 전략이든 소상공인들에게 트렌드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2020년 팬톤 올해의 컬러 '클래식 블루'를 해석하는 컬러 스터디]
출처 : design-milk.com

[2020년 팬톤 올해의 컬러 '클래식 블루']
출처 : outfits.allideen.design

[2020년 팬톤 올해의 컬러 '클래식 블루'를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
출처 : www.trade-decorator.co.uk

DDP
디자인
페어Fair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 트렌드 아카이브

‘Small Business X Designer: Collaboration’ Trend Archive

콜라보(Collaboration)는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협동생산’을 말합니다. 유명디자이너와 유명기업이 ‘콜라보’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좋은 디자인의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하지만 홍보를 위한 재미있는 ‘디자인 X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DDP디자인페어]는 ‘소상공인 X 디자이너’의 콜라보를 주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통, 기업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완성해 납품하며 그 대가를 받습니다. 디자인 서비스의 대가 혹은 디자인 용역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DDP디자인페어]의 콜라보는 다릅니다.소상공인은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디자이너는 예술상상과 기술상상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합니다. 성공의 결실을 함께 나눕니다.

오리지널의 귀환
The return of the original

슬림체어, 라운드체어
SLIM CHAIR, ROUND CHAIR

피카소퍼니처 X 고정호스튜디오
PICASSO FURNITURE X STUDIO JEONG HO KO

피카소퍼니처는 2007년 을지로가구거리에 설립되었습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해외 전시 국제가구박람회 관람, 라이프스타일 조사 등 총 8명의 직원들과 함께 디자인 트렌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카소퍼니처의 박영택 대표는 을지로가구거리의 부흥을 위해서는 을지로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 국내 젊은 디자이너 중 고정호 디자이너의 단순하면서도 우리 전통의 미를 살린 디자인에 주목하여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정호스튜디오는 2018년 창립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 오브제, 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미도 전시, 파라다이스 시티 인테리어 등의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상업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진 작가로 평가받았으며 영디자인 챌린지, 동대문 디자인 위크, 아시아프 등 국내외 전시에 참가하여 작가로서의 능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피카소퍼니처
대표 박영택
picassomall.co.kr

고정호스튜디오
디자이너 고정호
jeonghoko.com

DDP디자인페어 신한카드특별상 수상작품

슬림체어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못했지만 '슬림체어'는 남성 슈트에서 영감 받았습니다. 군살 없이 깔끔하면서 한편으로 날카로운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밑 부분 지지대의 X자 부분을 강조해 남성 슈트의 목 부분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라운드체어
따듯한 분위기로 의자를 제작하기 위해 나무를 활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날카로운 모서리를 유지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슬림체어 SLIM CHAIR

라운드체어 ROUND CHAIR

버섯 균사체 디자인을 입고 널리 이롭게 하리라
Mycelium, benefiting the environments through great design

마이셀리움 스툴
MYCELIUM STOOL

바이오랩 서울 X 김균철
BIOLAB SEOUL X KYUNCHUL KIM

선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사)타이드인스티튜트는 2018년 8월, 을지로 세운상가에서 국내 최초 공공생물학실험실 바이오랩서울을 런칭하여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신소재를 기르고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랩서울은 주로 마이셀리움(Mycelium)이라는 균사체를 소재로 조명, 가구, 완충재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연구했습니다. 마이셀리움을 이용한 제품은 100% 자연에서 분해가 가능하여 친환경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바이오랩서울은 창의적이면서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균철 디자이너와 만나 마이셀리움을 쿠션으로 활용한 스툴 제작에 나섰습니다. 김균철 디자이너는 건축을 베이스로 하며 가구와 소품 디자인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매번 다양한 소재와 콘셉트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전시로는 2018년 DDP영디자이너 챌린지, 2019년 아시아프(ASYAAF: Asian Student and Young Artist Art Festival)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랩서울
대표 황동호
facebook.com/biolabseoul

김균철
디자이너 김균철
instagram.com/etiquettepudding

마이셀리움 스툴
한옥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오래된 나무(한옥고재)의 아름다운 접합부분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마이셀리움 스툴'은 한옥고재의 형태에 생장시킨 '마이셀리움'을 통해 우연한 형태의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기증이 부여된 스툴의자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에 다리를 놓다
Building a bridge between men and pets

하임 & 하임브릿지
HEIM & HEIM BRIDGE

친절한목수들 X 호우디자인
FRIENDLY CARPENTERS X H.O.U DESIGN

친절한목수들은 2018년 두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하여 지역 고등학생들과 아동센터 졸업생들과 함께 가구를 제작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성원 모두 어엿한 청년이 되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절한목수들은 지역사회 청년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여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목수들은 DIY가구 제작 및 판매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목공수업 및 체험활동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목공제품의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들의 이해가 높은 디자이너를 찾던 중 호우디자인을 만나 반려동물가구 제작에 나섰습니다. 호우디자인의 구성원은 디자이너 박서웅, 기획의 김성규 그리고 반려묘 캐리입니다.
호우디자인은 반려묘 캐리에게서 얻는 영감으로 주로 반려묘 가구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반려묘, 반려견과 사람이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친절한목수들
대표 김선혁
kkumadoal95@naver.com

호우디자인
디자이너 박서웅
bemropp@naver.com

하임
반려동물가구는 사람만을 위한 가구들 사이에서 안전과 휴식을 제공해주는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반려동물가구의 문제점은 가구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이질적인 형태와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나 쉽게 어울리는 디자인 반려동물가구 '하임'을 디자인했습니다.

하임브릿지
하임과 패밀리룩으로 제작한 벤치형 체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디자인했습니다.

하임 HEIM

하임브릿지 HEIM BRIDGE

서로 다름이 모여 이룬 견고한 균형
Great balance made by differences

다른 다리 스툴
DIFFERENT 3 LEG STOOL

디플랜퍼니처 X 피엠지스튜디오
DPLAN FURNITURE X pmg studio

디플랜퍼니처는 을지로가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든 수입,
제작공장 등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와 오래된 클래식을 넘나들며
고객의 니즈를 위해 항상 연구하며 고민하는 가구업체입니다.

디플랜퍼니처는 가구 사업자로서 쌓은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팀을 이룬 피엠지스튜디오
최주현 디자이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게 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로 서로 모양도 재질도 다른 것들이 모여 하나로 기능하기
위해 새로운 균형을 잡는 콘셉트의 스툴을 제작하였습니다.

피엠지스튜디오의 최주현 디자이너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용적인 것과 실험적인 것을 아우르며 누군가의 삶 속에서 스치는
작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디자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디플랜퍼니처
대표 박성돈
www.sugarhouse.co.kr

피엠지스튜디오
디자이너 최주현
www.pmgstudio.kr

서로 다른 다리 스툴 1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3개의 다리가 한 개의 링으로 서로 연결되고, 판재를 받쳐 주어
하나의 스툴이 됩니다.

서로 다른 다리 스툴 2
부드럽고 유기적인 모양을 가진 두 개의 오브제가 한 개의 판재를 지지하는 역할로 엮여
하나의 스툴이 됩니다.

서로 다른 다리 스툴 3
세 개의 파이프가 한 개의 다리가 되어 판재의 한쪽을 지지해 주고, 반으로 잘린
큰 파이프가 한쪽을 지지해 주어 하나의 스툴이 됩니다.

서로 다른 다리 스툴 1 DIFFERENT 3 LEG STOOL 1

서로 다른 다리 스툴 2 DIFFERENT 3 LEG STOOL 2

서로 다른 다리 스툴 3 DIFFERENT 3 LEG STOOL 3

1인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가구 시장을 넉다운시키다
Knocking down the pet furniture market for a single household

그라운드플로어
GROUND FLOOR

탐킨 X 페시스튜디오
TAMKEN X PESI STUDIO

탐킨은 스틸소재를 기반으로 한 가구 브랜드로 2018년 런칭하였습니다.
'탐킨 TAMKEN'은 TAKE, MAKE, ENJOY의 약자로 소비자가 스스로
조립하고 사용하는 홈 퍼니싱 브랜드입니다. 출시된 제품 중 현재 데스크,
테이블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제품의 제작공정을 국내
자체공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킨은 소비자가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 포장재와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른바 넉다운퍼니처 생산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급성장한 반려동물가구 시장을 생각하던 중
페시스튜디오 전병휘 디자이너를 만났으며 마찬가지로 넉다운퍼니처를
추구하는 방향성 일치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를
위한 가구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Possibility, Essential, Standpoint, Interpretation의 머리글자를 딴
'페시 PESI'는 디자이너 전병휘가 설립한 산업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페시 스튜디오는 2016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Design Partner',
2017년 밀라노 Salone Del Mobile 'Tortona design week' 전시,
독일 디자인협회 Ein&Zwanzig '21 Winners' 수상,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전시 참여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과 작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탐킨
대표 김미영
www.tamken.kr

페시스튜디오
디자이너 전병휘
www.studiopesi.com

그라운드플로어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한가지인 수납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납선반과
반려동물의 집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각 층의 높낮이를 반려동물의 크기와 필요한
수납공간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조립식으로 설계되어 운송 시 효율적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하지만 '쎄누'에는 있다
Nothing happens by itself, but in 'CENU'

우노, 롱노
UNO, LONGNO

쎄누 X 디글라우
CENU X DIE GLAU

을지로4가역 사거리, 을지로 가구거리 초입에 위치한 쎄누.
설립자 박유성 대표는 을지로가구거리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처음 가구업계에 발을 들여 시작한 곳이 을지로입니다.
그만큼 을지로가구거리는 대한민국 가구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최근 을지로가구거리가 예전만큼 활기를 띄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수입 제품과 무분별한 카피제품에 밀려 자취를 감춘
을지로만의 가구 제작으로 옛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쎄누는 독일 특유의 실용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디글라우 류상현
디자이너를 만나 기능성과 공간활용이 뛰어난 제품에 대한 고민 끝에
복근과 허리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운동이 되는 의자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디글라우'는 '글라우벤(믿음)'이라는 뜻입니다.
2018년 새로이 시작한 디글라우는 디자인으로 기업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디자인 에이전시 그룹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디자인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진 디자이너들의
협동조합 형태의 디자인 전문 그룹입니다.

쎄누
대표 박유성
www.cenu.co.kr

디글라우
디자이너 류상현
ilsang1999@naver.com

우노
장시간 오랫동안 의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허리 건강을 위한 의자로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여 복부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긴장감을 유지하여 집중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롱노
오랫동안 앉아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허리를 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허리를 펼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서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것은 집중력에 좋다지만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기댄다는 개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앉아서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 기대는 의자로 편하게 쉴 수 있으며 공간 활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노 UNO

롱노 LONGNO

소파 장인의 기분 좋은 일탈
A pleasant departure from the sofa craftsman

스쿱드 콜렉션 : 스쿱드 스툴 / 스쿱드 벤치
SCOOPED COLLECTION: SCOOPED STOOL / SCOOPED BENCH

유엔디 X 김지윤스튜디오
UND X JIYOUN KIM STUDIO

소파 전문브랜드 유엔디는 소파 전체를 천연가죽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한 반려동물과 가족들을 위한 모델들이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소파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유엔디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새로운 라인업으로 스툴 벤치, 테이블 등 다양한 리빙 가구
개발에 나섰으며 콜라보레이션 파트너로 김지윤 스튜디오와 만났습니다.

김지윤 디자이너는 홍익대학교 졸업 후 펜택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펜텍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기획, 디자인, 양산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동시에 김지윤스튜디오(Jiyoun Kim Studio)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가구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레드닷, iF를 포함한 국내외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꾸준히 수상해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이며, 제품 디자인, 가구, 오브젝트,
공간, 브랜딩, 어플리케이션 등 디자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엔디
대표 이종호
www.undmall.co.kr

김지윤스튜디오
디자이너 김지윤
jiyounkim.com

스쿱드 컬렉션
'스쿱드 컬렉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실린더 형상의 단순한 도형에서 앉는 부분을
'스쿱'한 것 같은 느낌의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등받이 없이 편안한
앉을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스툴과 소파의 중간 역할을 지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목적성을 가진 스쿱 컬렉션은, 섬세하게 마감된 고품질의 천연가죽 소재로 어느 공간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스쿱드 콜렉션 : 스쿱드 벤치
SCOOPED COLLECTION: SCOOPED BENCH

스쿱드 콜렉션 : 스쿱드 스툴 SCOOPED COLLECTION: SCOOPED STOOL

이태리 감성 디자인의 서울 공략!!
Italian designs being targeted at the markets in Seoul

UND DC1 패브릭 소파
UND DC1 FABRIC SOFA

유엔디 X 스튜디오 파스티나
UND X STUDIO PASTINA

유엔디는 소파 전문브랜드입니다.
유엔디는 가죽이라는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성 가죽을 섞지 않고 소파 전체를 천연가죽으로만 제작합니다.
유엔디는 디자인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파 제작과 같이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던 때
이태리를 비롯 유럽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스튜디오 파스티나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시도하여 자신의 공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의 소파를 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파스티나는 2012년 로마에 설립된 이탈리아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가구, 인테리어, 보석 및 액세서리와 관련된
디자인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파스티나는 디자인은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접근 방식에
따라 정체성과 스타일을 지닌 독창적인 오브제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합니다.

유엔디
대표 이종호
www.undmall.co.kr

스튜디오 파스티나
디자이너 프란체스카 푸두,
도메니코 산토로
pastinaisgood.com

UND DC1 패브릭 소파
주거공간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크지 않은 사이즈임에도 넓고 편한 좌석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금속 프레임과 부드럽고 둥근 쿠션으로 구성되어 아늑한 좌석을 제공합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비율의 'DC1 패브릭소파'는 우아하고 재미있고 깔끔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소들의 조합은 클래식한 소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을지로 오리지널 : 메이드 인 을지로
Euljiro original: Made in Euljiro, Seoul. Korea

튜뷸러
TUBULAR

모던라이팅 X 크래프트콤바인
MODERN LIGHTING X CRAFT COMBINE

을지로 세운상가 모퉁이 모던라이팅은 을지로 조명상가의 영광을 이끌던, 작지만 큰 기업입니다. 모던라이팅에 들어서면 밝고 따듯한 조명들이 전시장은 물론 을지로와 을지로 조명거리의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흥했던 시절, 을지로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을지로 조명거리도 조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을지로 오리지널'이 사라지고 을지로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디자이너들이 조명상가에 나타났습니다. 을지로 오리지널이 탄생하고, '메이드 인 을지로'가 생산됩니다.

크래프트 콤바인은 2014년도에 설립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이기용, 조준익, 김예진, 박윤 디자이너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공예, 그래픽, 공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콤바인은 재료의 다양한 특성에 주목합니다. 재료가 가진 역사, 문화, 기법 등 다양한 배경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를 동시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디자인합니다.

모던라이팅
대표 이우복
www.modernlighting.kr

크래프트콤바인
디자이너 이기용, 조준익, 김예진, 박윤
www.craftcombine.com

튜뷸러
'튜뷸러'는 3개의 조명 시리즈로 고열에 강한 내열 유리인 '붕규산' 유리를 활용하여 소재를 가공하는 기법에 중점을 둔 디자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컬러의 유리를 접합하는 '인칼모' 기법과 유리 실린더를 가공하는 '램프워킹' 공정을 활용하여 제작한 조명으로, 기다란 실린더 파트가 가진 직선과 곡선 형태에 따라 사용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며 세 가지 형태의 시리즈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우리 '노하우'와 그들의 '상상'이 만날 때
When our 'know-how' meets their 'imagination'

티 램프
T LAMP

파로라이팅 X 이지디자인스튜디오
FARO LIGHTING X isy design studio

조명기기를 '파는 것'과 조명기기를 '만드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을지로 조명거리의 수많은 기업들이 모두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문에 자리한 수백, 수천 개의 옷 가게들이 모두 각각의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내지 않듯이 말입니다. 파로라이팅은 설립 이래 30여 년의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된 자체 제작에서 판매까지 아우르는 조명생산기업입니다. 오랜 시간 을지로 조명거리에서 쌓아온 파로라이팅의 '노하우'와 디자이너의 '상상'이 함께 한다면 의미 있는 조명문화를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콜라보레이션'으로 을지로 조명산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지디자인스튜디오는 디자이너 윤일섭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윤일섭은 산업디자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덴마크 'GamFratesi' 스튜디오에서 의자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위스 'Ecal' 에서 Master Product Design 학위를 받았으며, USM lighting과 Samsung TV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로라이팅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의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파로라이팅
대표 김기화
www.kialight.com

이지디자인스튜디오
디자이너 윤일섭
www.yoonilseop.com

DDP디자인페어 신한카드특별상 수상작품

T 램프
'T 램프'는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이동 가능한 테이블 조명으로서,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상단부의 평평한 면은 핸드폰 및 스마트기기의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을지로 조명산업을 예찬하다
Praise the Euljiro lighting industry

산업예찬
PRAISE THE INDUSTRY

유토조명 X 프래그스튜디오
UTO LIGHTING X PRAG STUDIO

"조명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한다."
유토조명의 조명철학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조명이다."
유토조명의 비즈니스철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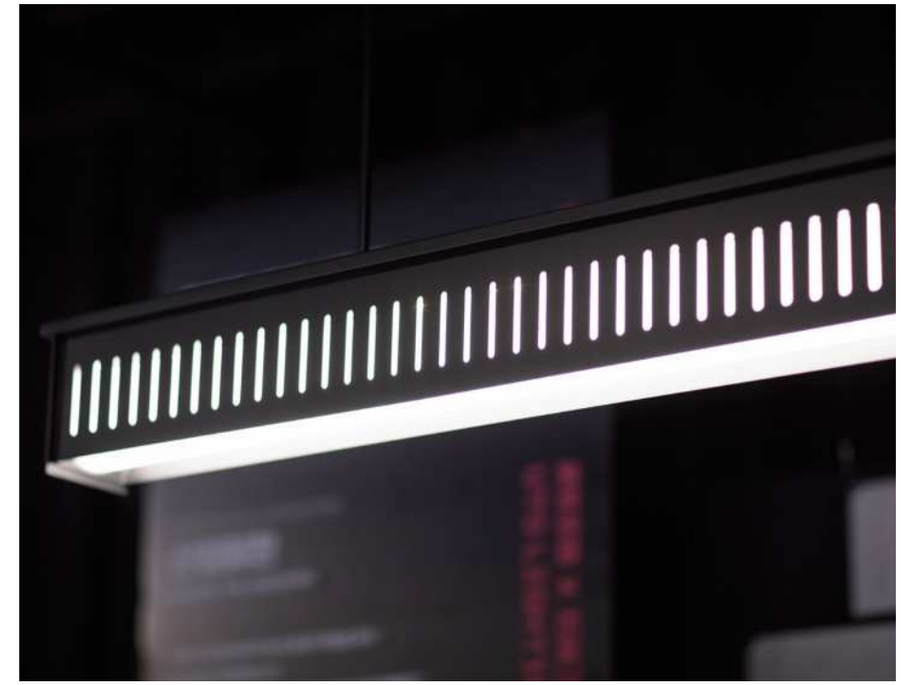
유토조명은 새로운 조명을 위해 늘 실험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조명 트렌드를 읽기 위해 국제조명전시회를 참관하고 열린 마음으로 디자이너들과 이야기합니다. 프래그스튜디오와의 만남 그리고 많은 소통은 유토조명의 조명철학을 구현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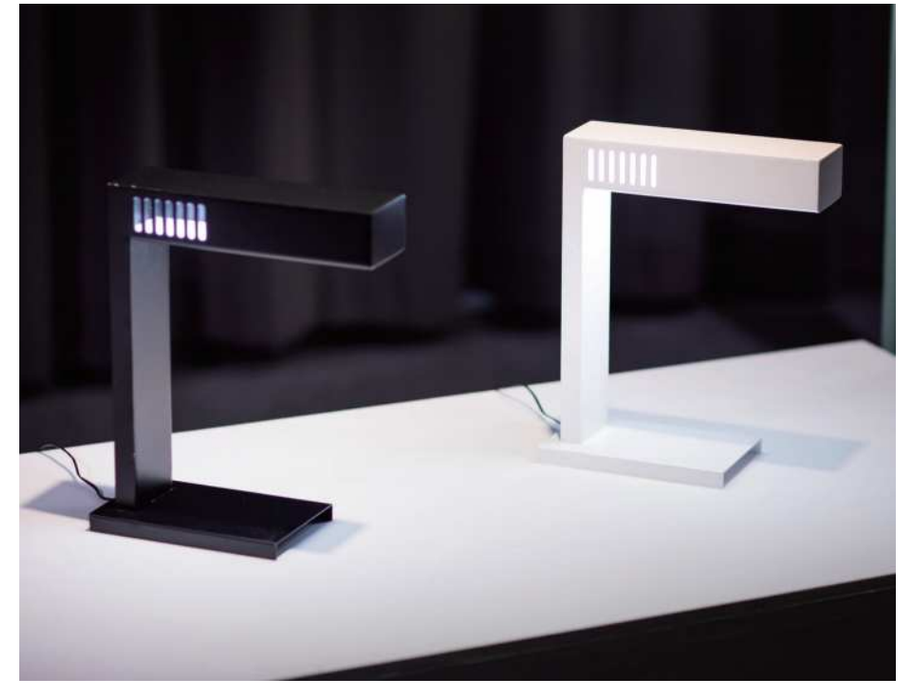
프래그스튜디오는 실천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실용적인 디자인 작업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생산 방식, 전통적 공예 기법, 피지컬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나가며 사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유토조명과 함께한 '산업예찬'이 그중 하나입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생산성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계없이 산업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산업예찬'은 이런 '당연함'을 재해석했습니다.

유토조명
대표 오세웅
utolighting.com

프래그스튜디오
디자이너 이건희, 최현택, 조민정
prag-studio.com

산업예찬
생산성을 위해 포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산업과 기구 해석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산업 환경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그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구조와 요소를 재해석하였습니다. 열의 순환을 위한 환기 구조, 전원 스위치 등, 산업 환경에서는 통용되지만 현대에는 디자인적으로 감추고자 하는 요소를 배치하여 과거 모더니즘 시대의 향수를 구현하였습니다.





조명, 공간을 바꾸는 마법
Lighting, magic that changes space

보잉 라이트
BOWING LIGHTS

영광조명 X 심승연
YGLUX X SEUNGYEON SHIM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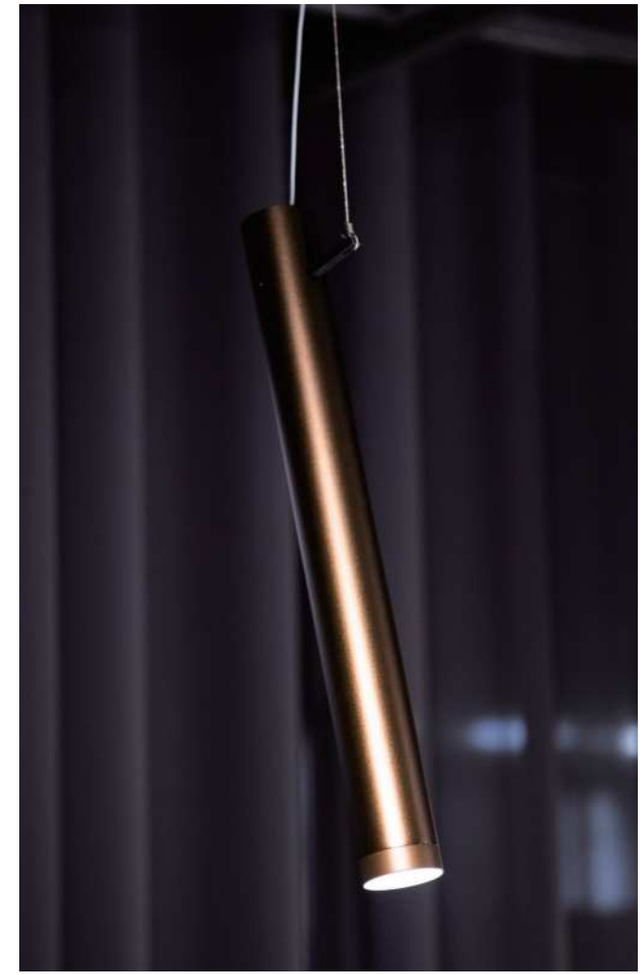
조명이란 '공간을 바꾸는 마법'. 영광조명의 사훈같은 말입니다. 예쁜 청계천변 세운상가 왼쪽에 자리잡은 영광조명은 을지로, 청계천 조명거리의 변신과 변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조명거리는 1960년대 건축자재 관련 업종이 을지로에 자리를 잡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명거리라 불릴 만큼 업체들이 많아졌고, 1980~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다른 지역에도 제법 큰 규모를 갖춘 조명 상점들이 들어서고 을지로, 청계천의 조명거리는 점점 옛날의 영광을 뒤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조명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영광조명은 조명거리 부활을 위해 조명에 디자인을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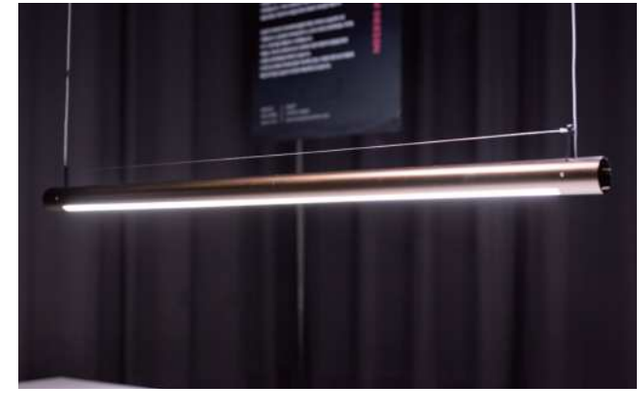
심승연 디자인은 2019년에 설립한 독립 디자이너 심승연의 1인 기업입니다. 심승연은 2018년부터 스스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구, 조명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건축 및 인테리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건축의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다양한 테크닉과 재료에 대한 호기심은 심승연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영광조명
대표 길태현
yglux.com

심승연
디자이너 심승연
www.seungyeonshim.com

보잉라이트
'보잉라이트'는 와이어와 스토퍼의 응용을 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펜던트 조명 시리즈입니다. COB 타입의 전구를 사용한 보잉 스팟라이트 버전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다운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의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킵니다. 바 LED가 사용된 보잉 태스크 라이트 버전 또한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 등 다양한 조명 연출이 가능합니다. 현악기의 현을 켜는 활의 특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철, 스테인레스 와이어, 광원으로 구성됩니다.





디자인 트렌드를 주목하다
Pay attention to the design trend

로테이팅 써클
ROTATING CIRCLE

대영라이팅 X 곽종범스튜디오
DAEYOUNG LIGHTING X KWAKJONGBUM STUDIO

대영라이팅이 을지로 조명거리에 자리 잡은 지 10년.
대영라이팅은 을지로의 변화와 함께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영라이팅은 시시각각 변하는 디자인 트렌드를 주목합니다.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 문화의 변화,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는 새로운
조명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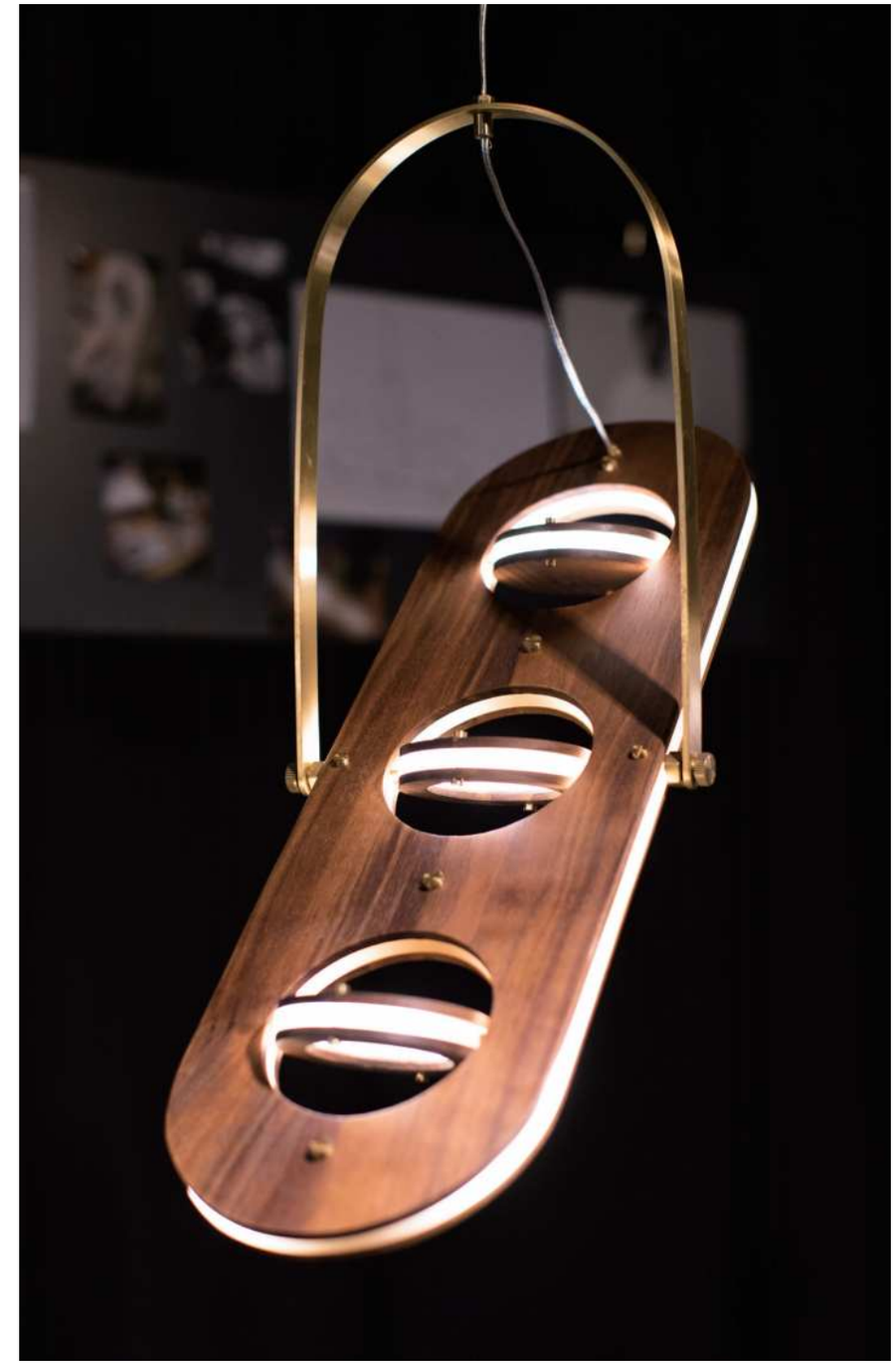
조명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공간을 완성하는 빛이며 공간이란
사람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는 대영라이팅의
경영전략입니다. 트렌드는 대영라이팅은 물론 을지로 조명거리의
다양한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방식입니다.

곽종범 작가는 금속공예가이자 조명, 리빙 디자이너입니다.
작가는 주로 일상 속에서 접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낀 다양한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선들의 잔상을 작품에 반영합니다. 물체의 아름다운 비례를 기억해
작품에 반영합니다.

대영라이팅
대표 이명균
대영라이팅.com

곽종범스튜디오
디자이너 곽종범
kwak-jongbumstudio.com

로테이팅 서클
식물의 타원형 잎사귀와 알알이 열매가 들어있는 완두콩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펜던트 조명입니다. 하나의 판재로만 보이는 심플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가로, 세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손잡이 구조를 접목시켜, 구매자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황동, 월넛 판재, 빛의 확산성이
뛰어난 아크릴을 사용했고, 컷팅, 선반 가공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평범함 속의 비범함
Very special in super normal

클라우드 오브제
CLOUD OBJET

하나조명 X 류종대
HANA LIGHTING X RYU JONG DAE

하나조명은 평범함 속의 비범함을 추구합니다.
하나조명은 평범한 인테리어 공간과 어울리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사실 '미니멀리즘'의 단순함과 평범함의 구현은 보기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조명의 디자인 미니멀리즘은 요즘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최종 전략입니다. 디자인은 이미 소비자의 감성과 감각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감성과 감각이 디자인이라면 하나조명과 같은 디자인이 필요한 소기업의 경영 전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조명이 '류종대' 디자이너와 함께한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이 디자이너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자이너 류종대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기억에 남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개인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하모니 아트퍼니처', 한국.
'아사카 박물관50주년 기념전시', 일본.
'부와부쉐 국제디자인 건축 워크샵', 프랑스.
'텐트 런던, 프로젝트그룹-H 가구전시', 런던 디자인 페스티발, 영국.
'퍼니처 이즈 섬씽 투 어스',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한국.

하나조명
대표 김홍진
hana9290@naver.com

류종대
디자이너 류종대
www.ryujongdae.com

클라우드 오브제
하늘 위 구름같이, 가볍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늘 위의 구름처럼,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오브제와 같은 펜던트 조명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목리'를 가진 호두나무를 깎아서 구름처럼 풍성한 볼륨을 가지도록 단순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을지로 큰 손
The Euljiro big SOHN

Co -

썬조명 X 아뜰리에손
SUN LIGHTING X ATELIER SOHN

을지로 대로변과 마주한 대림상가 1층. 을지로 조명거리 그리고 중구의 도심제조업인 조명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썬조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썬조명은 을지로 조명산업의 선배입니다. 오랜동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꾸준히 납품을 하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원하는 조명들을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또, 오랜 기간 일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을지로 조명업계에 그리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나눠주기 위한 여러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손동훈은 '아뜰리에손 ATELIER SOHN'의 아트디렉터입니다.
'손 SOHN'은 그의 성이자 한국어로 손. 곧 '크래프트맨십'을 의미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삼성디자인멤버십 활동을 거쳐 삼성전자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당시 디자인한 제품은 글로벌 시장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고
IF award, red dot award 등 다수의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아뜰리에손'을 설립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리서치 및 소재와 조형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썬조명
대표 이범용
썬조명.com

아뜰리에손
디자이너 손동훈
www.sohn.work

Co-
'Co-' 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공유공간에서의 빛의 방향성 및 사용성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Co-' 은 동일한 각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비추며, 하나의 콘셉트로 2-3인 혹은 5-6인의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사이즈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 온 썬조명과 함께 최종 프로토타입의 가공방법을 협의하였습니다. 알루미늄 CNC 가공을 통해 정밀한 완성도를 기하였고, 사이즈 변화에 따른 무게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을지로를 보다, 조명산업을 읽다
Looking at Euljiro, reading the lighting industry

플로우
FLOW

기아조명 X 프롬헨스
KIA LIGHT X FROMHENCE

을지로는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읽는 것은 을지로 조명산업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을지로의 변화란 조명 디자인의 경향, 흐름, 추세, 현상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의 감성을 이해 못하는 트렌드 맥락이 없고 이야기가 부재한,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는 조명 디자인은 을지로의 변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을지로의 변화는 을지로 조명생태계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소입니다.

을지로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반영한 을지로만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조명 비즈니스와 조명 디자인은 다른 역할입니다. 기아조명은 조명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작지만 전문기업입니다. 디자이너는 을지로의 변화를 디자인으로 승화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기업과 전문가의 콜라보레이션. 을지로 조명산업의 미래입니다.

'프롬헨스'는 런던 소재 디자인 스튜디오 PDD, 시모어파월 출신의 이규현과 강원석, 조해원이 함께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자체 브랜드입니다. 동시대 라이프 스타일의 '쿨'한 패션 아이템부터 '핫'한 생활용품까지 프롬헨스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조명
대표 김기화
www.kialight.com

프롬헨스
디자이너 이규현
www.fromhence.design

플로우
'플로우'는 얇은 천이 자유롭게 떨어지는 한 순간을 모티브로 제작한 조명입니다. 중력과 공기의 저항이 만들어 낸 자연스러운 곡면을 찾아 디지털로 구현하는 작업을 거쳐, 금형을 만들고 유리를 녹여서 조명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조명 디자인 메가트렌드
Lighting design mega-trend

클램프
CLAMP

조명보라 X 페시스튜디오
JOMYEOUNG-BORA X PESI STUDIO

청계4가 사거리 청계천변에 위치한 '조명보라'.
중구 도심제조를 상징하는 조명산업을 위해 새로운 조명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는 물론 전 세계 조명산업의 거대한 조류를 조명 디자인 메가트렌드라고 말합니다. 조명 디자인 메가트렌드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LED와 같은 조명의 기능과 기술은 물론 색, 형태 등 디자인의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메가트렌드는 조명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메가트렌드는 거꾸로 유행과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조명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조명보라'가 생각하는 새로운 조명 디자인 트렌드란 '조명보라'는 물론 '조명산업'을 위한 조명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디자이너 전병휘가 설립한 산업디자인 스튜디오 '페시 PESI'는 Possibility, Essential, Standpoint, Interpretation의 이니셜입니다. 페시는 2016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Design Partner', 2017년 밀라노 Salone Del Mobile 'Tortona design week' 전시, 독일 디자인협회 Ein&Zwanzig '21 Winners' 수상,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전시 참여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과 작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조명보라
대표 김학식
sssled.co.kr

페시스튜디오
디자이너 전병휘
www.studiopesi.com

클램프
배관 연결 지점 혹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호스 클램프(hose clamp)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쉽게 휘어지는 합판을 활용하여 원기둥 형태의 펜던트 조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조명은 합판을 클램프로 말아 조립하기 때문에 플렛팩(flat pack)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생산과 유통에서 효율적입니다. 목재 파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밤을 밝히는 조명의 두 가지 상징
Two symbols of lighting to illuminate the night

라쏘 램프
LASSO LAMP

포커스조명 X 양정모스튜디오
FOCUS LIGHTING X JUNGMO YANG STUDIO

을지로 4가에서 을지로 5가 사이 대로변 벽지점포들 사이에 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포커스조명. 포커스조명은 조명 디자인의 대중화를 생각합니다. 조명이란 인간의 삶을 따듯하고 밝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조명을 밝힌다는 것은 단순히 밤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부하게 밝히는 동시에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조명 디자인의 대중화란 어둠을 이기고 사람들을 빛 가까이 모으는 조명의 선함, 공간을 아름답게 밝히는 조명의 미학을 의미합니다.

양정모스튜디오는 인디펜던트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공예와 산업디자인의 철학적 융합을 상상합니다. 표현적이고 이야기가 복잡한 맥시멀디자인보다 물성의 본질에 가까운 미니멀디자인을 상상합니다. '손으로' 복귀하는 공예정신을 상상하지만 '기계로' 환원되는 산업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박하지만 이야기가 풍부한 풍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미니멀'한 작품, 제품을 상상합니다.

포커스조명
대표 박수연
lightingcafe.co.kr

양정모스튜디오
디자이너 양정모
www.jungmoyang.com

DDP디자인페어 은상 수상작품
라쏘 램프
'라쏘램프'는 포커스조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링타입의 펜던트 조명과 포커스조명이 위치한 을지로 제조 지역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재료(아크릴, 금속) 및 제작방식(벤딩, 용접)을 활용하여 제작된 조명입니다.

트렌드 만들기, 새로운 길을 걷다
Creating trend, walk a new way

팔각 플로어 램프 / 스플릿 펜던트 램프
PALGAK FLOOR LAMP / SPLIT PENDENT LAMP

대청조명 X 스튜디오하이브
DAECHUNG LIGHTING X studiohivvv

청계4가 사거리 청계천변에 위치한 대청조명.
새로운 조명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모든 조명 비즈니스의 꿈입니다. 사실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해하여, 반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중구 조명산업에 큰 위기가 온다면 새로운 '트렌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대청조명'이 만나고 싶은 디자이너란 새로운 조명 디자인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해하여,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스튜디오하이브는 2018년 만들어진 새로운 디자인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하이브는 사람들의 감성과 니즈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트렌드의 새로움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일에는 선구자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일입니다. 스튜디오하이브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청조명
대표 민정기
대청조명.com

스튜디오하이브
디자이너 정용
studiohivvv.kr

팔각 플로어 램프
한국적인 조명을 디자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 가옥 중 하나인 팔각정의 외형에서 모티브를 얻어 조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정자는 보통 산수가 좋은 곳에서 쉬거나 풍류를 즐기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는 정자 안의 사람들이 느꼈을 즐거움을 조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명의 외형은 팔각정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스플릿 펜던트 램프
틈새의 갈라짐을 통해 새로운 빛의 모습을 의도하였습니다. 각 지고 단단한 형태에서 유선형으로 바뀌는 흐름은 다양한 조형 변화를 보여 줍니다.

팔각 플로어 램프
PALGAK FLOOR LAMP

스플릿 펜던트 램프 SPLIT PENDENT LAMP

행복한 눈 내리는 풍경을 디자인하다
Designing happy snowy landscape

스노우 라이트
SNOW LIGHT

스노우볼제작소 만들 X 팔스튜디오
SNOWMANDEUL X PAL STUDIO

흔들면 멋진 눈 내리는 풍경이 되는 스노우볼.
1889년에 개최된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눈 내리는 에펠탑 스노우볼이 등장했습니다. 에펠탑 스노우볼은 박람회의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으며 스노우볼이 온 세상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집가들이 다양한 이야기의 스노우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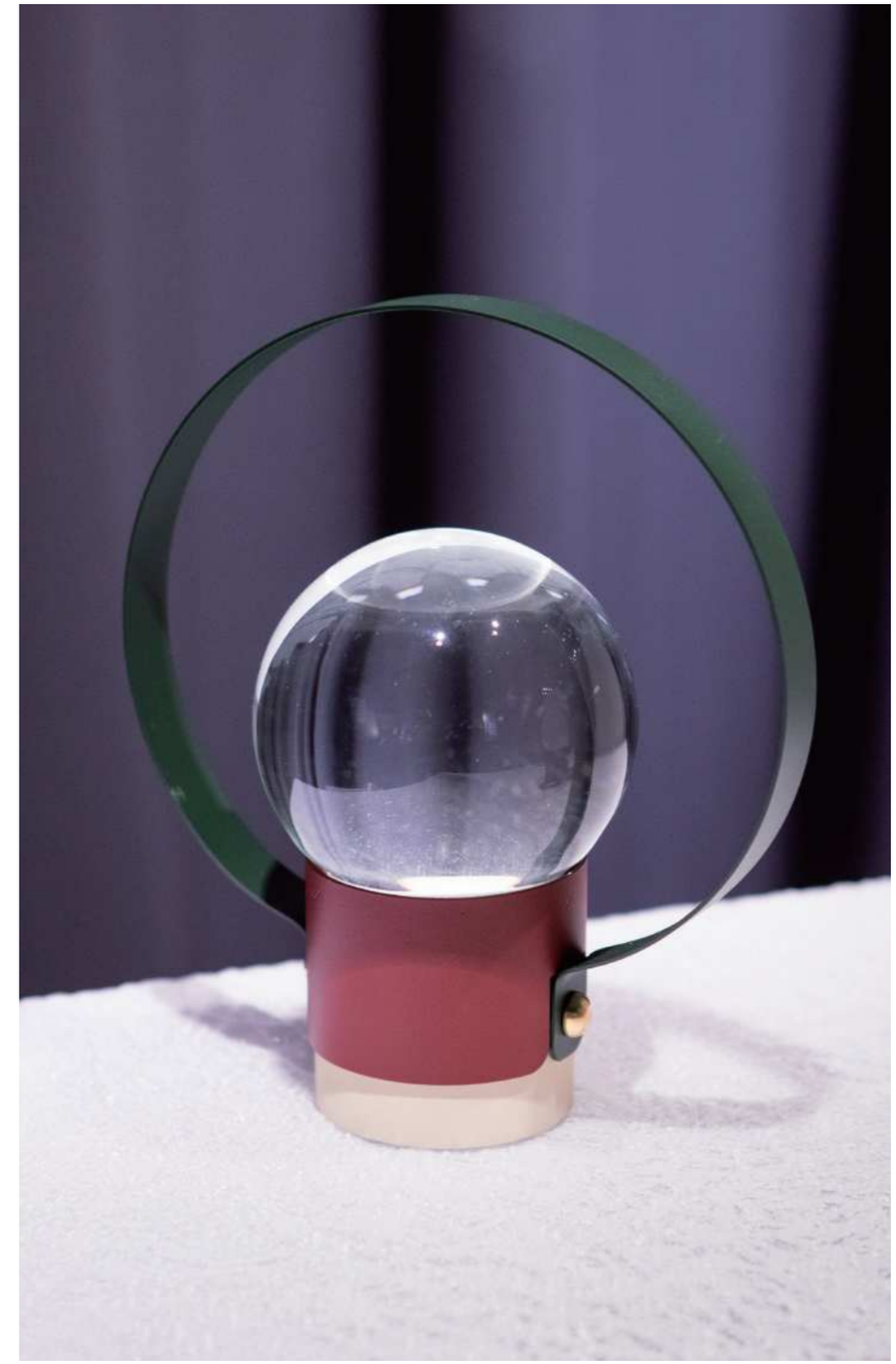
스노우볼제작소 '만들'은 스노우볼에 생활소품 기능을 더해 하나뿐인 스노우볼을 만듭니다. 스노우볼 디자인이란 이야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한편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팔스튜디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팔스튜디오가 디자인한 스노우라이트는 나무를 흔들면 사방으로 날리는 눈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스노우라이트는 포근하게 실내를 밝히는 무드램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스노우볼제작소 만들
대표 이은정
www.snowmandeul.com

팔스튜디오
디자이너 박지언, 이소윤
pal_studio@naver.com

스노우 라이트
'스노우 라이트'는 겨울의 추억을 상기시킵니다. 나무를 흔들어 떨어진 눈이 사방으로 날리는 움직임을 모티브로 하여, 사용자가 '스노우 라이트'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흔들어서 스노우볼 속의 눈을 흩날리게 할 수 있습니다. 유리구와 받침대를 조형적으로 이어주는 손잡이를 만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흔드는 스노우볼을 생각하게 되었고, 손잡이가 있음으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스노우볼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공간 속에 겨울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인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써 나가다
Branding through design

루오토
LUOTO

드쎄로 X 아몬드스튜디오
DECERO X ALMOND STUDIO

동대문은 세계 패션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동대문에서 드쎄로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작지만 큰 소기업입니다.
드쎄로의 가죽 제품은 유럽 어느 명품과 비교해도 기술과 품질이 뒤지지 않습니다. 드쎄로의 가죽 제품에 디자인이 더해진다면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몬드스튜디오와의 만남은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드쎄로만의 풍부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드쎄로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드쎄로만의 디자인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몬드스튜디오는 노르웨이, 핀란드, 한국을 베이스로 하는 디자인스튜디오입니다.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이해하며 스칸디나비아의 특징이 가득한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아몬드스튜디오는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인스톨레이션, 공간디자인, 로고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브랜드콘셉트 등 디자인 경계를 넘는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드쎄로
대표 박은옥
www.deceromall.com

아몬드스튜디오
디자이너 조수아,
밀라 니스카코스키, 알랜 옵달
almond-studio.com

DDP디자인페어 은상 수상작품

루오토 숄더백
'루오토 숄더백'은 오버 사이즈 숄더백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거나 당일 여행에 적절한 큰 크기를 갖고 있으며, 가볍고 튼튼한 비건 가죽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루오토 핸드백
'루오토 핸드백'은 데일리 핸드백입니다. 캐주얼 및 격식을 갖춘 자리를 위한 디자인 핸드백. 가볍고 튼튼한 비건 가죽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루오토 클러치
루오토 클러치는 야간 외출이나 미니멀한 일상에 휴대하는 클러치 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비건 가죽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루오토 핸드백 LUOTO handbag

루오토 숄더백 LUOTO tote bag

그래피티는 독창성을 더하고
Graffiti giving originality

한국의 사군자를 적용한 수제화
GRAFFITI SHOES

레드미티어디자인 X 메타포디자인스튜디오
RMD X METAFAUX STUDIO

레드미티어디자인(RMD)은 자동차 디자이너가 가업을 이어 만든 남성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젊고 강렬한 느낌의 컬러와 디자인을 제품에 도입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명된 최첨단 기능성 소재인 수퍼패브릭을 업계 최초로 구두에 적용해 품질 혁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레드미티어디자인(RMD)은 패션쇼 참가를 통해 젊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메타포디자인스튜디오와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레드미티어디자인(RMD)만의 독창적인 그래피티로 퀄리티와 독창성을 극대화하였고 메타포디자인스튜디오는 예술적인 그래피티 슈즈 콘셉트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새로운 형태의 슈즈패키지를 디자인했습니다.

메타포디자인스튜디오는 영국 런던의 세인트마틴스 대학원 졸업 후 디자이너로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디자이너 김주영이 설립하였습니다. 디자인과 아트, 전통과 현대, 공예와 기술 등 한정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동서양의 문화성에 고루 영향을 받은 그의 창작 활동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초월하는 실험주의적인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레드미티어디자인(RMD)
대표 석정우
www.redmeteor.co

메타포디자인스튜디오
디자이너 김주영
www.metafauxstudio.com

한국의 사군자를 적용한 수제화
전통적으로 한국화에서 한국의 철학과 미를 나타냈던 매화, 난, 대나무와 같은 사군자를 신발에 직접 핸드 페인팅 하는 예술적인 시도를 통해 신발의 가치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두 개의 완벽한 이야기, 멋진 상상
Two perfect stories, cool imagination

가정용초음파세척기
PORTABLE ULTRASONIC CLEANER

기드온소닉 X 에이치에스제곱
GIDEON SONIC X hs² design studio

기드온소닉은 초음파 식기세척기 전문기업입니다.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이물질의 세척뿐 아니라 농약제거, 중금속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20년 간 축적된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초음파 식기세척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소닉은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기드온소닉의 기술 상상과 에이치에스제곱의 디자인 상상이 새로운 빌트인 가정용 세척기를 만들었습니다. 에이치에스제곱의 이한솔, 김현석 디자이너는 기드온소닉의 개발 목적에 맞추어 제품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동기의 부착으로 생긴 불필요한 공간은 세제, 수저, 칼 등 주방용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사이즈의 콤팩트한 디자인 제품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기드온소닉과 에이치에스제곱의 완벽한 융합은 실용과 멋진 상상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기드온소닉
대표 박상우
www.gideonsonic.com

에이치에스제곱
디자이너 이한솔, 김현석
hs2studio.com

가정용초음파세척기
주로 산업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초음파세척기를 야채, 과일의 잔류 농약제거와 균 세척 및 간단한 식기 세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가정용으로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목적에 맞추어 디자인하였으며, 초음파 진동기가 부착되어 불필요한 면적이 생긴 부분을 세제, 수세미, 수저, 가위, 칼 등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실험실의 상상이 디자이너를 만나 현실이 되다
Biolab imagination comes real as meet designer

주방용품
Kitchen Goods

마이셀리움웨어
MYCELIUM WARE

바이오랩서울 X 크래프트콤바인
BIOLAB SEOUL X CRAFT COMBINE

2018년 세운상가에 자리를 마련한 공공생물학실험실 바이오랩서울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바이오신소재를 기르고, 원하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랩서울은 지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의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그러한 소재들을 실제 제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크래프트콤바인은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버섯 균사체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토기를 모티브로, 용기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소재가 가지는 이야기에 집중하여 디자인을 진행하는 크래프트콤바인은 손으로 빚은 토기처럼 형태와 질감이 조금씩 다르지만 각기 고유한 멋을 지닌 용기를 완성하였습니다.

버섯균사체는 자가조립(Self-assembly)을 통해 농업 부산물과 결합하여 복합소재로 자라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 제어 공정이 쉽지 않아 일관된 형태와 품질의 제품을 얻기 어려웠지만 크래프트콤바인은 이러한 점이 공예적인 특성과 연결된다고 보고, 3D 프린터를 이용, 형틀을 제작하고 그 내부에 버섯균사체를 생장시켜 용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바이오랩서울
대표 황동호
facebook.com/biolabseoul

크래프트콤바인
디자이너 이기용, 조준익, 김예진, 박윤
www.craftcombine.com

마이셀리움웨어
한반도의 토기를 모티브로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용기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크래프트 콤바인은 토기의 제작으로 인간의 생활상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앞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소재들이 분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버섯 균사체는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친환경 소재 중 하나로 성장을 제어하기 위한 공정이 쉽지 않아 일관된 형태와 품질의 제품을 얻기 어렵지만 이러한 점이 공예적인 특성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소재가 가진 특징을 반영하여 토기처럼 형태와 질감이 조금씩 다르지만 각기 고유한 멋을 지닌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용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콘크리트 오브제 건축가와 공예를 탐구하는 디자이너
Concrete objet architect and designer exploring craft

로에스 시리즈
LOESS SERIES

랩.크리트 X 픽트스튜디오
LAB.CRETE X FICT STUDIO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콘크리트를 재료로 작업하는 제조 기반의 디자이너이자 소상공인 그룹, 랩.크리트. 그들은 사물이 사는 공간을 디자인하며, 사물을 해석하고 작업합니다. 랩.크리트의 시선은 건축이 계획되고 구축되는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랩.크리트와 실험적인 그리고 레진 소재를 주로 다루는 픽트스튜디오는 기존 프로덕션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오브제와 가구 시리즈를 만들어 냈습니다. 디자이너이자 소상공인인 두 기업은 소재와 프로덕션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하여 이에 적합한 형태와 기능을 연결시켜 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에스 시리즈 작업에 있어서 두 팀은 오랜동안 한국의 문화와 함께한 소재인 황토에 주목하였습니다. 자연과 인체에 친화적인 소재로, 염색제부터 옹기, 건축 마감재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황토에 대한 쓰임과 의미는 현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장혜경 디자이너는 황토라는 소재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감을 드러내어 그 쓰임과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장하고자 합니다.

랩.크리트
대표 김형술, 이현재
designlabcrete.com

픽트스튜디오
디자이너 장혜경
www.fictstudio.com

로에스 시리즈
황토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문화와 함께한 소재입니다. 예로부터 황토는 기와, 벽돌의 재료 혹은 그 자체로 집의 벽체나 바닥을 바르는데 사용하였으며, 천연 염색 재료는 물론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토와 함께 볏짚과 나무, 돌 그리고 흙 등을 조합하여 스툴의자를 비롯한 다양한 오브제를 제작하였습니다.

생활용품에 입혀진 디자인, 일상을 풍요롭게
Put design on daily goods, making enriching routine life

지오메트리 조각
GEOMETRIC PIECE

가화 X 파운드/파운디드
GAHWA X found/Founded

30년 전통의 가화는 행주, 수세미, 샤워타월 등 욕실과 주방 일용잡화를 제조하는 회사로 고품질의 원사 구입부터 시작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재단 및 봉제 등 모든 생산 작업을 직접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운 잡화 업종의 특성상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상공 기업이 그러하듯이 여전히 가격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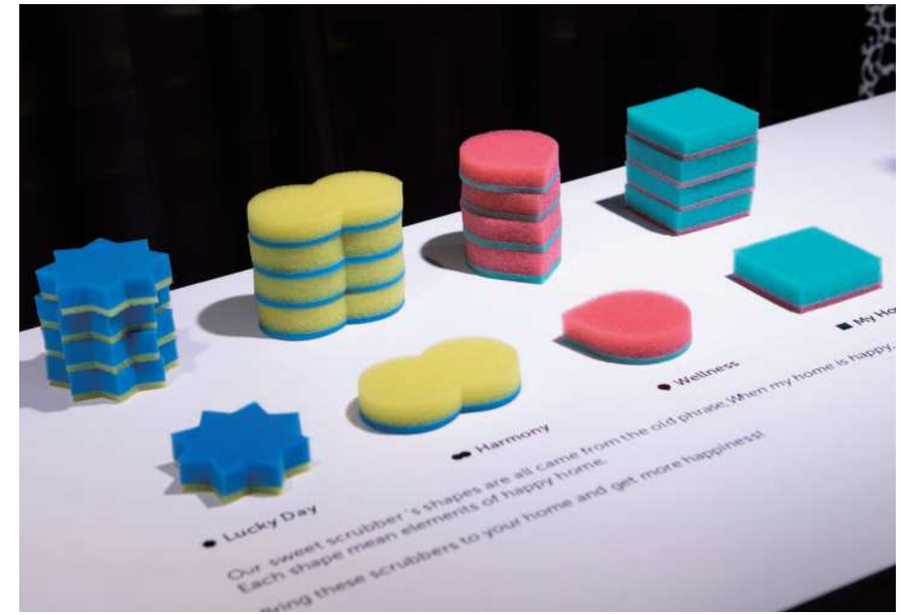
가화는 일상적인 소모품조차도 개개인의 특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디자인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파운드/파운디드 송규호 디자이너는 단지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사고의 확장을 통해, 보다 이성적인 전략과 감성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가화는 주방용품을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화된 형태와 컬러로 디자인 함으로써 특징 없는 일반적인 생활용품에서 재미있는 디자인 제품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가화
대표 손길태
www.gahwa.co.kr

파운드/파운디드
디자이너 송규호
www.foundfounded.com

지오메트리 조각
가장 일상적인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외한 선택권이 매우 적은 목욕용품과 주방용품(샤워타월, 수세미 등)을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화된 기능적 형태와 컬러로 디자인 함으로써 단순한 생활용품에서 디자인 제품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품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과감한 색상을 사용하여 하나의 오브제 또는 인테리어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다
Sleeping woods in warehouse rebirth

고재를 이용한 주방용품
KITCHEN UTENSILS MADE OF OLD WOOD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 X 디글라우
WOOD WAREHOUSE X DIE GLAU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는 오래된 한옥 해체과정에서 수집된 고재를 재활용하여, 고유한 시간과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형태에 현대미를 더한 제품이나 서까래와 한옥 고재기둥 등을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재의 멋을 알리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디자인에서 소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디글라우 류상현 디자이너는 항상 친환경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목재를 보고 그것으로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디글라우의 다양한 콘셉트와 만났습니다.

어디서나 보던 제품에 새로운 형태의 느낌을 주고자 디자인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제품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성 범위의 제한을 없앤 제품입니다. 나무라는 다양한 종류의 수종들을 사용하여 각각의 나무결로 패턴의 변화를 주고 후가공의 차이로 재료의 한계를 벗어나 레트로 감성, 모던한 느낌을 준 제품입니다.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
대표 김동제
gojae8.modoo.at

디글라우
디자이너 류상현
ilsang1999@naver.com

고재를 이용한 주방용품
버려지는 오래된 나무를 활용해 다양한 주방용품을 만들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우리나라 산천의 자갈을 모티브로한 식판 형태의 식기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초밥이나 주먹밥, 김밥 등 음식물을 담거나 접시로 활용하는 1인용 식기와 냄비나 후라이팬의 받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격자무늬를 '찬압' 형태로 만든 1인용 식기 세트입니다.

그래픽 패턴으로 아이들의 꿈을 만들다
Making children's dream with graphic patterns

내가 만드는 동화침구_ 옐로우/블루
FAIRY TALE KIDS BEDDING_YELLOW/BLUE

드로잉엣홈 X 오디너리피플
DRAWING AT HOME X ORDINARYPEOPLE

드로잉엣홈은 2011년 설립 당시 쿠션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제품군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은 침구류입니다.

드로잉엣홈은 외주방식이 아닌, 자체 제작 생산라인을 구축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문 재봉사의 손재단과 박음질 작업을 통해, 느리지만, 고집스러운 제작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침구의 경우 드로잉엣홈이 직접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업실에서 제작되고 있어 1:1 디자인 상담과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능동적인 시도와 실험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디자인스튜디오 오디너리피플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소통과 공감의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로잉엣홈이 집중하고 있는 침구제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상상할 수 있는 동화 같은 그래픽 패턴과 컬러를 매칭하여 사랑스러운 키즈 침구를 디자인, 제작하였습니다.

드로잉엣홈
대표 장선혜
www.drawingathome.co.kr

오디너리피플
디자이너 강진
www.ordinarypeople.kr

내가 만드는 동화침구_ 옐로우/블루
침구는 하루는 함께 마감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침구에는 따듯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동화침구' 속에는 무수한 이야기와 상상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다
A warm heart to loved ones

산수화 가방
SANSUHWA BAG

난나비자수 X 에어앤센트스튜디오
NANNAVI EMBROIDERY X air and scent studio

난나비자수는 어머니가 만든 제품을 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이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자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30년 이상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수사들이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랜 정성으로 쌓은 명성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에 난나비자수의 자수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수작업의 정성이 가득 담긴 고풍스러운 난나비자수 제품의 이미지는 올드하다는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어 좀더 현대적인 브랜딩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난나비자수는 에어앤센트스튜디오 강원향 디자이너와 같이 현대적인 브랜딩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아이디어와 실용성이 더해진 감각적인 제품개발에 나섰습니다.

에어앤센트스튜디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화합니다. 디자인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통합 디자인의 관점에서 제품, 가구, 그래픽, 인테리어, 브랜드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난나비자수
대표 서지연
www.nannavi.co.kr

에어앤센트스튜디오
디자이너 강원향
wonhyang@gmail.com

DDP디자인페어 은상 수상작품

산수화 가방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 자수의 다양한 기법과 원단의 속성을 이용하여 수묵화의 농담을 표현한 가방입니다.

물결 누비 쿠션
도도하지만 유려한 강물의 흐름을 자수기법인 러닝스티치(running stitch), 그리고 누빔으로 표현한 쿠션입니다.

산수화 가방 SANSUHWA BAG

물결 누비 쿠션 Wave quilting cushion

위안과 희망을 주는 액세서리
Accessories with hope and comfort

댄싱스톤 십자가 목걸이
DANCING STONE CROSS NECKLACE

모비주 X 바이림스튜디오
MOBIJ X bylimstudio

모비주는 'MOST BEAUTIFUL JEWELRY'의 약자입니다.
모비주는 가장 아름다운 주얼리는 십자가 주얼리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모비주는 아름다운 십자가 주얼리를 착용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비주는 순수익금의 10%를 사회에 기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모비주는 댄싱스톤 십자가목걸이를 제작하였습니다. 14k 로즈골드와 큐빅을 흔들리게 하여 만든 데일리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댄싱스톤에 비유하였고, 위안과 희망의 상징인 십자가와 목걸이를 결합시킨 디자인으로 목걸이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또한 바이림스튜디오와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남겨 디자인 이야기를 동화처럼 구현하였습니다.

바이림스튜디오 강혜림 디자이너는 조소와 디자인경영을 전공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일러스트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한 출판 및 굿즈 상품들을 디자인하며 다양한 전시와 플리마켓 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비주
대표 김보미
mobij.co.kr

바이림스튜디오
디자이너 강혜림
instagram.com/bylimstudio

댄싱스톤 십자가 목걸이
'댄싱스톤 십자가 목걸이'는 메인스톤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과 접목시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댄싱스톤에 비유하였습니다. 희망의 상징인 십자가를 모티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그림과 제품의 스토리를 구현하여 댄싱스톤과 그림엽서로 선물 세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생강처럼 알싸한 맛
Piquant taste like a ginger

문 / 다이버
MOON / DIVER

진저아이웨어 X 컴스페이스
GINGER EYEWEAR X COMSPACE

진저 아이웨어는 2018년 런칭한 국내 하우스 안경브랜드입니다. 생강처럼 알싸한 맛과 향을 내면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일상 속의 아이웨어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아세테이트로 만든 '뿔테'와 스테인리스 판을 사용한 '판테'가 주력상품이며, 가벼움과 따뜻한 컬러웨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아이웨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컴스페이스 문정욱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디자이너 특유의 발랄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를 가져와 메인 컬러인 레드와 블루 컬러의 틴트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베이직하면서도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아이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문정욱 디자이너는 스타일리시 캐주얼 브랜드 컴스페이스를 런칭하여 1020세대를 타깃으로 한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로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브랜드의 감성이 느껴지는 편집 형태의 남성복 및 안경, 시계 등 액세서리를 소비자에게 선보여 오고 있으며, 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저아이웨어
대표 이가영
www.gngr.kr

컴스페이스
디자이너 문정욱
nineteeneighty1980.com

문 / 다이버
안경은 착용하는 사람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문/다이버'는 진저아이웨어 워커즈 라인의 볼드 버전으로, 두꺼운 프레임과 라운드 림이 인상적인 풀 아세테이트 안경입니다.

착용한 듯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As naturally as if not worn

인 비저블
IN VISIBLE

진저아이웨어 X 티엘
GINGER EYEWEAR X TIEL

진저 아이웨어는 2018년 런칭한 국내 하우스 안경브랜드입니다.
생강처럼 알싸한 맛과 향을 내면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일상 속의 아이웨어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아세테이트로 만든 '뿔테'와 스테인리스 판을 사용한 '판테'가
주력상품이며, 가벼움과 따뜻한 컬러웨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아이웨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웨어는 착용한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좀더 미니멀하고
누구에게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던 중 세운상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티엘의 이중한, 샤를로트 테르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였습니다.

티엘은 이중한과 샤를로트 테르 두 디자이너가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트호벤에서 만나 스위스와 서울을 기반으로 함께 활동 중인
디자인 듀오입니다. 제품, 가구, 그래픽,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평면과 입체를 오가며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두 디자이너는 컨텍스트와 내러티브를 오브제로 재해석하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진저아이웨어
대표 이가영
www.gngr.kr

티엘
디자이너 이중한, 샤를로트 테르
www.tiel.ch

인 비저블
'인 비저블'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안경입니다. 안경이라는 전통적 기능과
미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안경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투명 아세테이트로 소재를 활용해
미니멀하게 재해석하였습니다.

소소한 기쁨을 주는 디자인
Design that gives a little joy

썸데이
SOMEDAY

커먼플래닛 X 허밍제이
COMMON PLANET X HUMMING J

커먼플래닛은 도자기 생산 기법인 슬립캐스팅을 활용합니다.
슬립캐스팅의 복제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디자인은 우주공간처럼 무한합니다. 디자인 상상의 한계란 없습니다.
다양한 상상을 디자인으로 활용하여 평범한 일상에 필요한 실용적인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커먼플래닛은 허밍제이 홍진희 디자이너를 만나 꽃, 새, 동물, 곤충 등의
자연에서 새로운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도심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작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도심 속에서라도 평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허밍제이는 꽃, 새, 동물, 곤충 등 소박한 자연을 상징하는 액세서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남대문 액세서리 상가에서
도매상으로 시작하여 홍콩, 파리, 도쿄 등의 패션 주얼리 페어, 미국 패션
엔젤 미국 쇼룸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커먼플래닛
대표 김지원
515wonk@naver.com

허밍제이
디자이너 홍진희
hummingj.imweb.me

썸데이
언젠가는 즐거운 것들로 세상이 채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썸데이'의 작은 이미지들은
모두 즐거움과 경쾌함을 상징합니다. 풍요한 자연과 일상의 작은 기운들을 모아서 디자인
했습니다.

한글을 담은 매듭
A knot containing Hangul

매듭을 활용한 패션아이템
KNOT FASHION ITEM

배키맴 X 청춘고백
BAEKY MAEM X BAD WOMAN

한국 전통 매듭의 기본 매듭 종류에는 2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배키맴은 이러한 20여 가지 매듭 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끈 하나에 마음을 담아 매듭을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배키맴은 대중과 한글 아트캘리그라피로 소통하는 청춘고백 채영미 디자이너와 협력자가 되었고, 채영미 디자이너는 한글 캘리그라피의 요소를 더해 매듭을 또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매듭과 한글을 활용한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청춘고백 채영미 디자이너는 아트캘리그라피 디자이너입니다. 다양한 전시행사와 강의 그리고 기업 프로모션을 경험하였으며 최근 한류와 더불어 흥미를 끌고 있는 한글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키맴
대표 배경연
baeky.modoo.at

청춘고백
디자이너 채영미
www.badwoman.pe.kr

한글매듭 에코백
한글은 무궁무진한 디자인 창고입니다. 한글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디자인 소재입니다. 한글 청춘고백체 캘리그라피가 새겨진 데님소재의 에코백입니다.

한글매듭 브로치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청춘고백 글씨체와 매듭기술이 잘 어우러진 한글매듭 브로치입니다.

한글매듭 에코백 Hangeul knot ecobag

한글매듭 브로치 Hangeul knot brooch

제비 하늘을 날아라
Swallow fly in the sky

해연가의 발효 제비집 4종 종합세트
HAEYEONGA SWALLOW'S NEST 4 FLAVORS SET

해연식품 X 더블랙
HAIYANSNP X THE BLACK

사람들의 건강과 젊음을 위한 식품은 무엇일까?
해연식품은 '제비집'을 비롯한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품가공 기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원료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식품 산업 제조업체와 공장 등에도 건강식품 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비집'은 오래전부터 진귀한 식품재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비집의 식재료로서의 인지도가 아직 낮습니다.
새로운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블랙과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을 한 번에 타개하는 기회였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연식품을 재해석하여 브랜드에 반영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더블랙은 100여 개 국내외 기업 브랜드를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수천 개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한 창의적인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를 겸비한 독립 대행사입니다.
현재 '착한 창조를 만들어 내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 프로젝트 외에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서 다양한 스타트업 사업성 및 브랜드 가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연식품
대표 최춘길
www.haiyansnp.com

더블랙
디자이너 배재열
www.theblackad.com

해연가의 발효 제비집 4종 종합세트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장수의 소원을 열 가지 오래 사는 자연물에 비추어 예술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느리지만 넉넉히 세월을 견디는 거북처럼, 잘라도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의 뿔을 가진 사슴처럼, 세월이 가도 한자리에서 꿈쩍 않는 바위처럼, 고고하며 순결한 천년의 학처럼 자신과 소중한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염원한 것 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는 '건강식'으로 발효 제비집을 포지셔닝하기 위하여, 십장생 콘셉트의 패키지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감성적인 파스텔톤의 단색 배경에 여백의 미를 살려 손으로 드로잉한 듯한 십장생 오브제를 배치하고, 시선이 가는 곳에 포인트 컬러를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한 수묵담채화 패키지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콜라보레이션' 트렌드 아카이브

귀요미 캐릭터로 보는 서울 핫 플레이스
Hot places in Seoul introduced by cute characters

허영이와 사치의 서울나들이
HEOYOUNG AND SACHI'S SEOUL OUTING

후니프린팅 X 김쌀네가게
HUNI PRINTING X KIMSSALSTORE

후니프린팅은 기업의 인쇄물과 웨딩 맞춤 앨범 그리고 온라인 POD(맞춤 인쇄물 제작) 시장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 3년 전부터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팬덤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굿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에 위치한 수많은 인쇄업소들이 디지털화로 활기를 잃었지만 후니프린팅은 SNS 문화 등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셀럽 팬덤 문화에서 비롯된 굿즈는 후니프린팅의 정체성을 담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김쌀네가게의 김사라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서울나들이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며 관광정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굿즈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쌀네 가게는 아직 1년이 채 안 된 작은 가게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고 굿즈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를 위해 작고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지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후니프린팅
대표 채훈희
www.huniprinting.com

김쌀네가게
디자이너 김사라
skimsarah@hanmail.net

허영이와 사치의 서울나들이
후니프린팅과 김쌀네가게가 함께 개발한 캐릭터 허영개와 사치고양이의 그래픽이 인쇄된 컵, 엽서, 마그넷, 달력 등의 굿즈 아이템들입니다. 서울나들이라는 이야기로 서울의 명소를 소개합니다.

고양이 집사들의 평범한 일상
Cat mom's ordinary life

쫑챙툰
JJONG CHAENG TOON

야옹서가 X 일삼일와트
YAONG SEOGA X 131WATT

야옹서가는 2017년 7월 설립된 1인 출판사입니다.
17년째 고양이 작가로 활동해 온 고경원 대표가 기획, 편집, 취재 실무를 전담합니다. '고양이의 행복에 도움이 될 책'을 지향하면서, 시각 이미지에 중점을 둔 사진에세이, 그림 에세이, 만화책 등을 주로 펴내고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에서도 짐작이 가듯이 애묘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고양이 사랑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옹서가는 고양이를 이해하고 고양이 책에 맞는 편집 디자인을 함께 고민할 디자이너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점을 잘 아는 일삼일와트 김진영 디자이너를 만나 고양이를 키우는 남집사와 여집사의 생활툰 <쫑쨍툰>을 제작하였습니다.

일삼일와트는 시각적인 창작을 위해 노력하며, 출판 및 다양한 영역에 이미지와 결합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래픽 스튜디오입니다.
일삼일와트는 'what'이라는 의문에 크리에이티브 한 에너지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일삼일와트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옹서가
대표 고경원
instagram.com/catstory_kr

일삼일와트
디자이너 김진영
www.131watt.com

쫑챙툰
고양이 쫑이와 챙이의 입양기를 담은 만화책입니다. 고양이를 몰랐던 남집사와 여집사가 고양이를 키우며 일어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고양이의 실제 모습을 꼭 닮은 만화와 실사를 병행 편집했습니다.

쫑챙툰 파우치
쫑이 챙이의 캐릭터가 들어간 파우치입니다. 소품을 담을 수 있는 아담한 크기로,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한정으로 제작합니다.

쫑챙툰
JJONG CHAENG TOON

쫑챙툰 파우치 JJONG CHAENG TOON Pouch

기억으로 감는 시계태엽
Hand-wound watch with memories

타임머신
T-MACHINE

워치테크 X 팡팡팡그래픽실험실
WATCHTECH X PANGPANGPANG

남대문시장 수입상 2평 남짓한 작은 공간. 오래된 시계 속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시계를 수리하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시계 공방을 열고 사람들의 추억이 묻은 시계를 복원하고 수리합니다. 또한 추억과 기억이 담긴 가방, 벨트, 지갑과 같은 가죽제품. 그런 제품의 가죽으로 시계줄을 만듭니다.

일제에 항거한 윤봉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인 김구가 정표로 교환한 회중시계. 이런 이야기를 품은 회중시계를 모티브로 손목시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워치테크'의 두 청년은 오래된 기억과 추억을 시계에 저장합니다. 오래된 시계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계로 다시 탄생합니다.

팡팡팡그래픽실험실은 2016년 결성된 디자인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박채현, 조화라, 한나은 3인으로 구성됐으며 편집 및 그래픽을 기반으로 경계 없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실험적인 태도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으며 재미있는 시각적 접근을 추구합니다.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전시디자인(2018), DDP 소통의 도구(2018), 현대백화점 신년그래픽(2019) 등의 디자인 작업 및 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

워치테크
대표 정승용, 문웅배
www.watchtech.co.kr

팡팡팡그래픽실험실
디자이너 박채현, 조화라, 한나은
www.pangpangpang.kr

나의 시간 Take your time
시간은 항상 똑같은 흐름대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 앞당기거나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흐름은 어떠한가요? 서두르지 말고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타임머신 T-MACHINE
시간대를 넘나드는 타임머신을 시계판 위에 그래픽화 한 제품입니다. 손목 위의 타임머신을 콘셉트로 계기판, 그리드, 타입페이스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나만의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나의 시간 Take your time

타임머신 T-MACHINE

50년의 기술과 최신 기술의 만남
Matching between 50 years technology and latest one

세운소리
SEWOON SORI

노트랩 X 250디자인
KNOT LAB X 250 DESIGN

류재용 장인은 서울시가 지정한 세운마이스터 중 한 명으로
세운상가와 50년을 함께한 자동제어 전문가입니다.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진공관 앰프를 개발한 류재용 장인은
전자기기, 오디오 분야에 본인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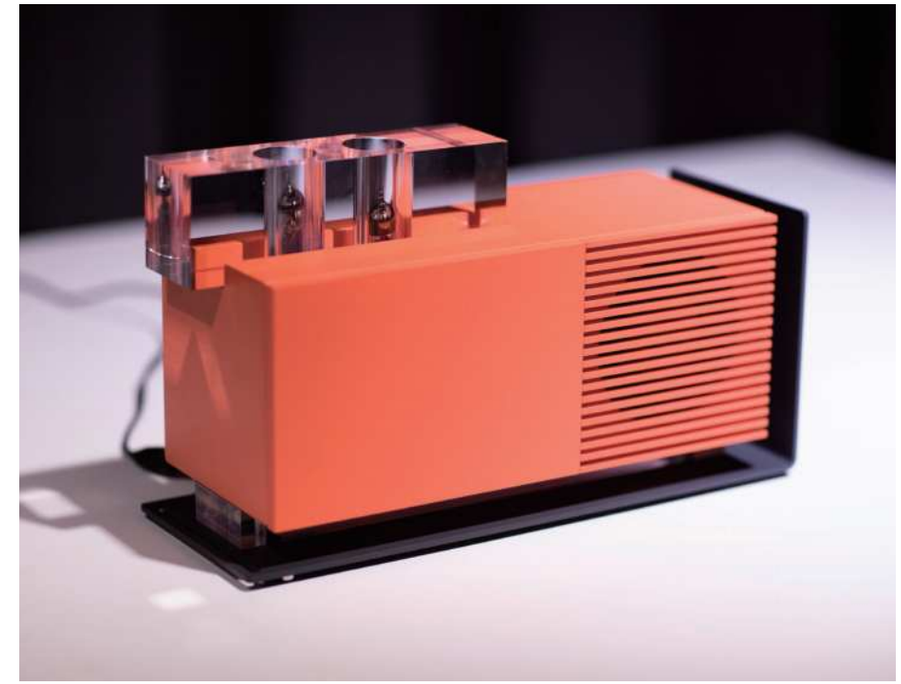
250디자인의 이호영 디자이너는 세운상가에서 평생을 보낸
류재용 장인의 스토리를 디자인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류재용 장인과 세운상가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재해석하고,
나무, 철, 패브릭 등과 같은 수작업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세운상가라는 의미 있는 공간을 형상화하여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해
세운상가 주변 환경과 공간, 건축물에서 조형적인 콘셉트를 얻고, 디자인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비대칭의 조형은 하나의 오브제로서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의 조화로운 만남을 상징하며,
진공관이라는 기존 스피커에 없는 요소를 활용해 조화롭게 디자인으로
표현한 제품이 탄생하였습니다.

노트랩
대표 류재용
blog.daum.net/robtjl

250디자인
디자이너 이호영
www.250.or.kr

DDP디자인페어 금상 수상작품
세운소리
세운소리는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진공관을 이용한 스피커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잊혀진 것들에 대한 향수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다가오는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세운소리는 이러한 향수를 청각이라는 감각을 통하여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청명한 소리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crystal clear sound

일러스트 회전 오르골
ILLUSTRATION ROTATING MUSIC BOX

멜로디캣 X 바이림스튜디오
MELODY CAT X bylimstudio

오르골 전문 제작기업 멜로디캣은 오르골을 직접 기획,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부터 현대적인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태엽식 아날로그 오르골뿐만 아니라 전자식 무빙오르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멜로디캣은 바이림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에 그림이나 피규어, 혹은 내부 장식 등의 일부 보완과 함께, 바이림스튜디오만의 오르골 모델에 대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혜림 디자이너는 오르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특유의 동화 같은 분위기의 일러스트 디자인을 오르골에 적용하는 동시에 일러스트 속 녹아 있는 스토리와 오르골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오르골에 대한 몰입감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바이림스튜디오 강혜림 디자이너는 조소와 디자인경영을 전공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일러스트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한 출판 및 굿즈 상품들을 디자인하며 다양한 전시와 플리마켓 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멜로디캣
대표 채희숙
www.melodycat.co.kr

바이림스튜디오
디자이너 강혜림
instagram.com/bylimstudio

일러스트 회전 오르골
빈티지한 느낌의 나무 소재에 귀여운 피규어가 부착된 기존의 멜로디캣 회전오르골에 바이림 스튜디오의 일러스트 작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감성의 오르골을 탄생시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야만 음악소리를 들려주는 멜로디캣의 오르골 제품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아날로그 감성을 되살려주는 소품입니다. 바이림스튜디오는 모든 스케치와 채색의 전 과정을 직접 손으로 완성함으로써 인간미와 따뜻한 감성의 일러스트 작품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을 콜라보레이션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여 미니회전오르골, 시계오르골, 거울오르골을 만들었습니다.

향기로운 도전, 내일부터 맑음
Sweet challenge, sunny from tomorrow

날씨캔들
WEATHER CANDLE

날:DAY X 박민제
NAL:DAY X PARK MINJE

'날:DAY'은 5인으로 구성된 캔들제조 청년 창업그룹입니다.
'날:DAY'의 캔들은 콩으로 만든 '소이왁스'를 주재료로 한
100%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소비자들 각각의 주문에 맞춰 디자인, 향,
색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날:DAY'의 캔들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녹여 넣는 브랜딩 디자인을
고민하던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날씨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감성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캔들로 사람들에게 포근한 행복과 안정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박민제 디자이너는 일러스트, 앨범아트, 그래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 놓치기 쉬운
일상의 아름다움을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디자인으로 구현합니다.

날:DAY
대표 한나리
instagram.com/nal_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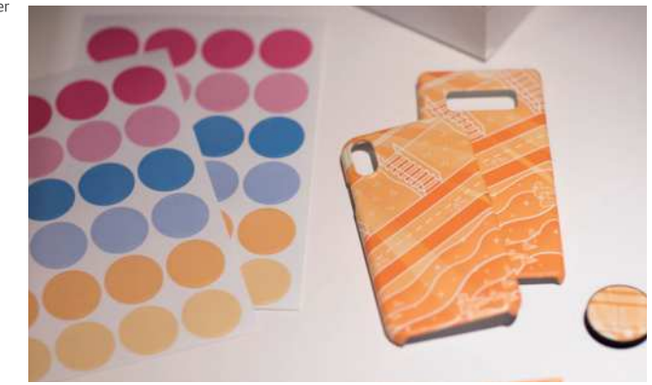
박민제
디자이너 박민제
pppack39@naver.com

날씨 캔들
모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자연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구),
비(물방울), 번개(다이아몬드), 눈(12면체)으로 4가지의 날씨를 아이콘화하여 표현한
캔들입니다.

구름 캔들 홀더
석고로 제작되어 캔들과 잘 어울리는 캔들 홀더입니다.

날씨 휴대폰케이스
날씨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가 인쇄된 휴대폰케이스입니다.

날씨 캔들 WEATHER CANDLE
구름 캔들 홀더 cloud CANDLE holder



날씨 휴대폰케이스 WEATHER PHONE CASE

장인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 스피커
Speaker with master's experience and philosophy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
VACCUM TUBE BLUETOOTH SPEAKER

노트랩 X 어보브스튜디오
KNOT LAB X above.studio

류재용 장인은 진공관 앰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운 상가를 대표하는 마이스터입니다. 노트랩(KNOT LAB)의 'Knot 매듭'이라는 명칭은 다른 욕심이나 생각은 매듭짓고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진공관 앰프와 음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류재용 장인의 신념은 코일을 감는 모습에서, 제품의 설계와 디자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공관 앰프의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 또는 억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의 제품들은 진공관을 노출시키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류재용 장인은 오직 좋은 소리에 집중합니다.

어보브스튜디오는 류재용 장인의 철학을 담아내는 디자인을 목표로 콜라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공간에 스며드는 제품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을 대표하는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고, 시제품 프로세스를 통해 양산 제품 생산의 가능성을 꿈꿉니다.

노트랩
대표 류재용
blog.daum.net/robtjl

어보브스튜디오
디자이너 전창명
fb.com/abovedesignstudio

DDP디자인페어 금상 / DDP디자인페어 신한카드특별상 수상작품

진공관블루투스스피커(스탠드형) 스테레오
스피커 두 개가 사용되는 스테레오 타입의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스탠드형) 디자인입니다.

진공관블루투스스피커(탁상용)
탁상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탁상용) 디자인입니다.

진공관블루투스스피커(스탠드형) 스테레오
VACCUM TUBE BLUETOOTH SPEAKER(Stand) Stereo

진공관블루투스스피커(탁상용) VACCUM TUBE BLUETOOTH SPEAKER(Desk)

나무와 금속의 조합으로 만든 감성이 담긴 제품
Product having sensibility as creating with wood and metal

책걸이
BOOK HANGER

감성공업 X 오렌지도어
TENDER PRECISION X ORANGE DOOR

감성공업은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를 기반으로 직접 제품을 디자인, 생산, 판매하는 목공예공방입니다. 채워진 것이 가득한 일상에 틈을 만들어 그 틈으로 허기진 감성과 일상의 결을 다시 채워 줄 감성공업만의 일상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도어의 윤경원 디자이너는 감성공업이 제작한 나무와 금속이 조합된 제품들을 보고 산업 디자인이 라이프스타일에 접목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성공업의 제품들에 오렌지도어의 디자인을 더한 책걸이는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인간미를 전달하는 미적 가치를 높인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독서대 형태를 뛰어 넘어, 독서를 돕는 동시에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새로운 형태의 책걸이는 걸이와 스탠드 형태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재미의 요소를 더했습니다. 등받침을 제거하여 오픈 형태로 단순화한 반면, 책장이 넘어가는 것을 잡아주는 양측의 핸들을 재미있는 디테일 요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감성공업
대표 심재명
tenderprecision.com

오렌지도어
디자이너 윤경원
bee4star@naver.com

책걸이(벽걸이형)
하부받침과 상부 캡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벽걸이 위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책걸이(벽걸이형+책상형)
벽걸이는 물론 책상 위에도 세워서 진열 가능하도록 하부 받침에 금속 막대를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 하부 받침이 무겁도록 하며 동시에 내부 수납 (전면 책 고정 황동봉-필요에 따라서 탈부착 가능- 2개)이 가능하도록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책걸이(벽걸이형)
BOOK HANGER(wall)

책걸이(벽걸이형) BOOK HANGER(Wall & Desk)

더 쇼케이스 :
콜라보레이션, 미래를 위한 디자인 신화 만들기

The showcase:
Collaboration, creating a design myth for the future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의 두 가지 선행사례, AGO, 4WORK를 소개합니다.
이들 선행사례의 공통점은 기업자체가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인하우스 디자인팀'을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전문가와 디자인 전문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기업입니다.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융합? 비즈니스와 디자인의 분리될 수 없는 결합? 디자인 기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디자인 기업이라고 말하는 '애플', '이케아'도 이런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AGO, 4WORK는 도심 창의산업의 전형입니다. 도심산업은 이제 새롭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도심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조명거리 새로운 신화를 만들다.
Create a new myth at Euljiro lighting district.

AGO

아고 라이팅은 그간 국내 조명업계에 부재했던 오리지널리티를
회복시키고자 시작된 한국의 조명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조명을 자체 개발하고 수입산 조명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고유한 디자인,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자 하며 조형성과 기능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디자인 스튜디오 '바이마스 BYMARS'를
운영하는 유화성 디자이너가 디렉터로 영입되며 본격화된 아고는
2년여 간의 준비 끝에 2019년 9월 런칭했습니다. 아고는 깊은 신뢰로
맺어진 작업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브랜드 이름을 '옛
친구'라는 뜻의 한자 '雅故(아고)'에서 따와 지었습니다. 아고는 기술자들과
합심해 국내 제조업이 한층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조명, 인테리어 시장에서 통용되는 디자인과 품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우복 Lee ou bok

유화성 Mars Hwasung Yoo

AGO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빅게임 BIG-GAME 스위스 Switzerland
김진식 Jinsik Kim 한국 Korea
존 아스트버리 & 토베 탐베르트
John Astbury & Tove Thambert 스웨덴 Sweden
JWDA 스웨덴 Sweden
스튜디오 워드 studio word 한국 Korea

www.agolighting.com
info@agolighting.com

서커스 CIRKUS

핀치 PINCH

앨리 ALLEY

노바 NOVA

디자인 공동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신화를 새롭게 쓰다.
As a design Community, Rewrite the myth of collaboration.

4WORK
DESIGN GROUP

4명의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는 곳. '4WORK'의 시작은 올해로 42년이 된 '조양소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지훈, 정용준, 채원중 디자이너는 20년 가까이 '조양소파'와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협업을 통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해와 축적된 기술은 '디자이너 X 조양소파' 협동을 위한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조양소파'의 제안으로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다른 경험은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인 하지훈은 전통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산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Innotheraphy', 'HNC GAMES', 경기 창조 경제혁신센터 등 공간 디자인 경험의 채원중.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20년 동안 '조양소파'에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과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 실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용준. '4WORK' 콜라보레이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기에 '필요충분'한 조합입니다.

하지훈 Ha. Jihoon

정용준 Jung. Yongjun

채원중 Chae. Wonjoong

4work.co.kr
info@4work.co.kr

아이라운지 엔드리스브릭소파
iLOUNGE Endless Brick Sofa

지피 엔드리스 책장
Zippy Endless Bookshelves

지피 엔드리스 데스크와 파티션, 오피스 의자
C1 Zippy Endless Desk & Office Chair C1

아이리스 체어
Iris Chiar

아이라운지판테온 체어와 파티션, 원형 사이드 테이블
iLOUNGE Panteheon Chair with Partition & Circle Side Table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 디자인을 입히다

Student Participation Project: Design on it

'DDP디자인페어'에는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언젠가 '소상공인 X 디자이너'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에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디자인의 목적이, 'DDP디자인페어' 참여 목적이, 결코 소상공인의 상품 외형을 세련되고 예쁘게 만드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디자인이란 동시대를 관통하는 '감성, 기술, 경향, 흐름, 추세, 변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큰 틀의 디자인 개념이 소상공인을 위한 'DDP디자인페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 디자인을 입히다'에 참여한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은 '디자인'이 소상공인이 대면한 다양한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꽃과 조명
FLEURS ET LUMIÈRES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이제이 프로젝트 / 김주화, 이화진
'꽃과 조명'은 꽃의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과 거울을 사용한 제품으로, 조명이 켜 있지 않을 때에도 인테리어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경을 사용하여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거울과는 다른 색감으로 새로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사르륵 단프라 조명
DANPLA LIGH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더덕 / 이혜진
단프라시트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제작된 조명입니다. 골판상 구조 안에 색모래를 채워 넣은 아이디어가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뒤집어서 모래를 쏟아 보면, 흘러내리는 모래의 신기한 무늬와 함께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르륵'하는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페이스드
TWO-FACE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소형, 조예원
작품의 콘셉트는 왕가위의 영화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가위의 영화를 보며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중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거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영화 '아비정전'의 '아비'가 거울을 보며 단장하는 장면을 보고 거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스 : 인터랙션 조명
A BOX: INTERACTION LIGHTING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영진
호기심을 자극하는 박스 모양 인터랙션 조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각형의 박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납작한 마름모 형태의 기둥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듬한 모양으로 제작한 밑면을 좌우로 기울이면 서로 다른 색상의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점선을 따라 새어 나오는 빛은 어둠 속에서 박스의 외곽선을 보여 줍니다.

독도를 담다
THE DOKDO

한성대학교
썸 / 김미현, 손영난, 안혜린
'독도를 담다'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영토인 독도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조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독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독도의 하루를 담았습니다. 작품에는 아침햇살이 비치는 독도의 고요한 느낌, 정오의 푸른 바다 독도의 청량한 느낌, 저녁의 노을 진 독도의 따뜻한 느낌의 3가지 상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통무늬무드등
TRADITIONAL LAMP

한성대학교
전통문양 / 이수언
우리나라 전통 문양의 디자인이 들어간 종이 무드등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가로 세로 20cm x 20cm의 콤팩트한 사이즈의 조명입니다. 조명을 켰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한국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리라이프
RELIFE

세종대학교
유수진
'Draw your life', 수동적으로 단지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디자인하고 좀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일환으로 리라이프는 사용자의 생활패턴,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샹들리에 전구 #1 / #2 / #3
CHANDELIER BULB #1 / #2 / #3

상명대학교
라이씨 / 오수진, 정유진, 유나경
Chandelier Bulb는 소켓에 간단하게 끼우기만 해도 작동되는 전구처럼, 샹들리에 그 자체로 하나의 전구가 됩니다. 기존의 샹들리에를 재해석하여 모듈화하고, 부피를 줄임과 동시에 가장 널리 쓰이는 규격의 소켓을 사용하여 어디서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워 램프
BOWER LAM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민유정
바워 램프는 한낮 태양 아래에서 나무를 올려다 본 장면을 표현한 조명입니다. 사용자가 나무 아래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떠올리게 하여 편안한 휴식을 주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비 오는 날의 회색
GRAY OF RAINY DAY

서울시립대학교
이효준
비 오는 날의 회색은 평소 회색빛의 콘크리트가 비에 젖는 순간, 다채로운 빛을 내는 도시의 풍경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하였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위치시켜 모서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무드등으로 사용자에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오디너리 뷰
ORDINARY BEAU_

상명대학교
무아 無我 / 최민준
'일상적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Ordinary'와 '아름다운'을 뜻하는 'beautiful'이 합쳐진 'Ordinary beau_'는 'Ordinary view'로도 읽히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원하는 패턴의 모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낮에는 나를 표현하는 액자로, 밤에는 조명으로 기능합니다.

시소
SEESAW

상명대학교
컨택트 / 안태정, 송민지, 송정혁, 이동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필연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가구 디자인입니다. 시소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본 제품은 표면적으로는 구조를 숨겨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고, 동시에 사용자가 가구를 사용할 때 조금은 친숙하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은밥상 리-디자인
RE-DESIGN RETRO SIDE TABLE

서울시립대학교
솜동 / 길다솜, 손동주
옛날 사용하던 추억의 양은밥상을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리-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양은밥상은 무게가 가볍고, 그 사용 방식에 있어서도 유니버설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요즘 점점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의 공간과 생활 패턴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본(本)트레이 / 운(雲) 트레이
BON TRAY / CLOUD TRAY

이화여자대학교
이해인
한국 목가구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하단 받침대인 마대의 틀을 살려,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본 트레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운 트레이'는 구름과 같은 곡선을 특징으로 하는 트레이로 '본 트레이'와도 조합이 가능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월테이블 / 소반스툴
HALF MOON TABLE / SOBAN STOOL

이화여자대학교
이희승
반월 테이블은 조선시대 소반에 이어 붙여 곁반으로 사용하곤 했던 '반월반'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테이블로 입식 테이블이나 책장으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소반스툴은 단순한 사각형의 형태와 소반의 형상을 결합하여 디자인한 작품으로 측면에서 보면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동물 다리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유
ME.U

세종대학교
수민 / 임수민
미유는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반려묘와 집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me.u는 심심한 반려묘를 위한 미끄럼틀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공간, 그리고 집사를 위한 소파로 구성된, 반려묘와 집사가 함께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이너풀
INNERFUL

성신여자대학교
THE 나은 / 김은빈, 고나흔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뒷받침할 정확한 정보와 이들의 고민을 덜어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추천 앱 디자인입니다. 직관적이고 친근한 UI를 통해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지오산스 / 디지털_마스크
GEOSANS / DIGITAL _ MASK

홍익대학교
심찬보, 이원경
GEOSANS는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알파벳의 모음과 자음의 넓이의 대비를 보여주는 폰트로, 배리어블 폰트로 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마스크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소재로 제작한 증강현실 페이스필터입니다. Spark AR로 제작한 페이스 필터 작품은 관객의 얼굴과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글리치 수트
GLITCH SUIT

홍익대학교
박수진
글리치 수트는 일상에서 기록해 온 이미지들의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시켜 글리치 형태의 파격적인 그래픽을 이용한 새로운 의복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복의 매체적 특성을 이용해 디지털의 형태로 쌓아 온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퐁듀오 : 일상의 행복
FONGDUO: DAILY HAPPINESS

성신여자대학교
퐁듀오 / 송예진
반짝이는 순간을 발견하고 행복을 전달하는 일상의 친구가 되어줄 캐릭터 브랜드 퐁듀오 FONGDUO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퐁듀오 : 일상의 행복'에 담았습니다.

소소
SOSO

인덕대학교
키즈몽 / 박용균, 이승학, 한지은, 이혁주
소소는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소소는 에니어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사용자와 맞는 사람을 매칭해 주어,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누군가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을리
REULLY

서울시립대학교
영현 & 정현 / 김영현, 김정현
리을리는 손으로 쌓아 올리는 방향 오브제입니다. DIY 키트 등 기본 모듈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 오브제를 만들 수도 있고, 디자인 원형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방향 오브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절미 토끼의 당근 사랑 / 하늘을 날고 싶은 병아리 / 댕댕이가 주는 즐거움 / 끄적끄적은 즐거워
INJEOLMI RABBITS LOVE CARROTS / A CHICK WHO WANTS TO FLY IN THE SKY / THE JOYS OF A DENGDENG / WRITE DOWN THE PLEASURE

성신여자대학교

조이나래 / 백은채, 양은선, 정예리, 이주희

당근을 짝사랑하는 인절미 토끼가 인절미를 많이 먹어 몸이 인절미 색으로 변하는 이야기, 매일 아침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는 병아리 '조이짹' 이야기 등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표현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크기와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맛 / 오늘의 향
TODAY'S TASTE / TODAY'S FRAGRANCE

덕성여자대학교

덕이와 순이의 슈퍼마켓 / 한수진, 변수현, 박현지, 이유림, 이현, 전예림, 성은비, 이성현

위빙 소재와 가죽, 위빙 소재와 옥스퍼드 소재로 디자인한 가방 제품입니다. 과일 마켓과 다양한 과일의 향을 주제로 작업하여 시각, 후각, 촉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분 변용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원 샷 아트패킹 / 아이콩 아트패킹
ONE SHOT ART PACKING / YOUNG BEAN ART PACKING

동덕여자대학교

빈 / 여서희, 이영빈, 한지혜

원 샷 아트패킹은 아이들의 그림을 넣어 만든 귀여운 디자인의 미술 가방입니다. 아이콩 아트패킹은 원 샷 아트패킹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아이들의 미술 가방이라는 용도를 고려하여 수납공간을 넓히고 어디에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데미지 레이스업 뷔스티에 / 레이스업 웨이스트 코르셋 / 라벨 데미지 스커트 / 패치워크 뷔스티에 / 퀼팅 뷔스티에
DAMAGE LACE-UP BUSTIER / LACE-UP WAIST CORSET / LAVEL DEMAGE SKIRT / PATCHWORK BUSTIER / REMNANT QUILTING BUSTIER

동덕여자대학교

A.P.OB / 유진희, 박지수, 김효정, 진준희

데님 팬츠를 리폼하거나 자투리 데님을 업사이클링하여 뷔스티에, 웨이스트 코르셋 스커트 등을 만들었습니다. 패브릭의 특성과 질감, 컬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경쾌한 분위기의 룩을 완성하였습니다.

버튼 베스트 / 리-디자인 스커트 / 프론트 피스 베스트 / 조각들
BUTTON VEST / RE-DESIGN SKIRT / FRONT PIECE VEST / PIECES

피스피스 / 김영은, 김현아, 문지윤, 김지현, 송지혜, 신예리

자투리 천을 활용하고, 기존 의상을 분해, 재조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패턴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만들어 낸 기존에 없던 유니크한 의상과 액세서리들은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커스텀 에이프런 / 셋업 재킷 / 셋업 랩스커트
CUSTOM APRON / SETUP JACKET / SETUP LAPSKIRT

동덕여자대학교

BWG / 김서영, 김유성, 김유현, 안혜리

커스텀 에이프런은 상-하부가 나누어진 형태로 상황과 용도에 맞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같은 라인의 제품들과 함께 원하는 대로 결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리프 팩토리
LEAF FACTORY

동덕여자대학교

전하윤, 이연재, 김수연

나무 잎사귀와 잎맥이 가진 비정형적인 형태를 자투리 한복 천을 활용하여 퍼즐을 맞추듯 조합함으로써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느낌과 한복의 고유한 특성을 함께 표현한 작품입니다.

늘옷 / 굴레 / 스모킹백
NEUL HANBOK / BRIDLE / SMOKING BAG

상명대학교

늘 / 이은지, 황유진, 윤정원, 김주현

전통 규방공예인 조각보, 복주머니 등을 모티브로 하고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소재와 형태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용하고 재해석하여 만든 의상과 패션 소품입니다.

원 샷 아트패킹 / 아이콩 아트패킹
ONE SHOT ART PACKING / YOUNG BEAN ART PACKING

동덕여자대학교

빈 / 여서희, 이영빈, 한지혜

원 샷 아트패킹은 아이들의 그림을 넣어 만든 귀여운 디자인의 미술 가방입니다. 아이콩 아트패킹은 원 샷 아트패킹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아이들의 미술 가방이라는 용도를 고려하여 수납공간을 넓히고 어디에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편안할 은 / 흔들 도 / 고요할 정
MONO ROUNDS / GO SLOWLY / EVENING AIR

숙명여자대학교

청랑:青浪 / 강민우, 김문영, 서민경, 왕은혜

'편안할 은'은 나무 판이 공과 부딪혀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고, '흔들 도'는 매달려 있는 나무와 메탈이 부딪히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또한 '고요할 정'은 공과 받침이 좌우로 움직이며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은, 도, 정은 각각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며 사용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림피오
LIMPIO

서울시립대학교

김리준

림피오 Limpio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이 없으며 휴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쏠 / 한울 / 송아리
SSOL / HANWOOL / SONG-ARI

인덕대학교

린정 / 유연정, 이채린

천지창조에서 매일매일 창조된 땅과 물, 해, 달, 별 등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제품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담긴 작품들은 순우리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토킷
TOKIT

서울대학교

소여 SAWYER / 나희연, 송산하, 임성준

토킷은 촉각적인 인터랙션을 통해 기기와 운전자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IoT 제품입니다. 졸음운전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 기기와 사용자 간의 '촉각적 대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스텔라
STELLA

서울시립대학교

팀 트웰브 / 이영행, 윤대명

스텔라는 아크릴의 빛 도강 효과를 이용한 별자리 패턴을 빛으로 시각화한 조명 오브제이자 컵 받침으로도 기능합니다. 은은한 조명 빛에서 나오는 감성적 요소를 극대화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더툴북
THE TOOL BOOK

숙명여자대학교

디넷 / 성호정, 이현빈, 인혜진, 조예진

교과별 문구용품을 분류하여 하나의 교과서처럼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정리정돈이 쉬운 교과목 문구 세트입니다. 아이의 자발적인 정리정돈을 유도하고, 스스로 준비물을 준비하기 쉽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점과 부모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듈러
MODULAR

한성대학교

모듈러 / 김기현

모듈러는 건설 그리고 설비와 같은 외부 현장 환경에서 근무하는 야외 근로자를 위한 모듈형 스마트 안전 고글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부오
BUWO

세종대학교

김우성, 안수미

부오는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코딩 교육용, 쌓기 블록 제품입니다. 아이들은 어플에 장난감을 구동시키기 위해 직접 명령 체계를 입력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딩의 원리에 대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세결
SEGYUL

세종대학교

세결 / 김보령

세결은 우리나라의 전통 장신구 노리개를 통해, 잊혀져 가는 전통 매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교구입니다. 매듭 전통을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비교해 보며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블라인드사이트
BLINDSIGHT

세종대학교

포 사이트 / 노승호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지켜주는 다른 카테고리의 IoT 제품을 제안합니다. BlindSight는 일상의 편의 기능에 기반을 두고, 복도의 동작 인식 센서와 초인종의 카메라와 마이크에 접근하여 집 앞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범죄의 위험에 대해 알려주는 현관의 파수꾼입니다.

앙부일구 / 일기책
ANGBUILGU / ILGICHECK

숙명여자대학교

문가랑, 박재임

앙부일구는 단순히 몇 시 몇 분의 시간이 아닌 하루의 어느 순간에 내가 있는 것인지를 느끼게 해 줍니다. 다이어리이지만 숫자가 적혀 있지 않은 일기책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 비워 두면 됩니다. 두 작품은 사용자에게 자유와 사색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비상탈출장치 엑시트 해머
EMERGENCY ESCAPE DEVICE
EXIT HAMMER

대학교

이스케이프 / 김선우, 김선일, 백지환

엑시트 해머는 화재 시 신속하게 탈출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창문을 깬 후 밖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제품에 발광 물질을 코팅하여 비상 시 화재나 연기로 시야가 흐려졌을 때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조명 디자인]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가구 디자인]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그래픽 디자인]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패션 디자인]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제품 디자인]

디자이너 X 창신동 장인 : 그래픽 패션

Designer X Changsin-dong Master: Graphic Fashion

'Graphic Fashion'은 그래픽 디자인과 산업현장이 협업하여 기존 산업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실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패션산업의 중심지인 동대문 창신동 일대에서 석사과정 디자이너들이 봉제산업 제작자들과 '그래픽 패션'을 테마로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이너는 그래픽 기획을 현장에서 제품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봉제산업 현장의 제작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패션산업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디자이너와 제작자가 하나의 팀으로,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상품화하는 과정까지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학연계 프로젝트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도가 제작자와 디자이너가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패션봉제 산업에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더 룸
THE ROOM

메이커 김선숙
디자이너 김민경

사람들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비칠 수 있는 공간, 가장 편안하면서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폐해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나의 방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토대로 무작위적인 공간 배치와 상상 속의 나의 방을 패턴화시켜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 패션제품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제작과정은 메이커, 김선숙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타협과 소통으로 진행되었으며, 출발점인 그래픽디자인이 실제 제품, 즉 협업의 결과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의 신선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크닉매트백
PICNIC MAT BAG

메이커 여운옥
디자이너 최명지

피크닉매트백은 더 완벽한 소풍을 위해 만들어진 가방 겸 매트입니다. 완벽한 소풍을 위해 준비한 아이템들을 간편하게 지퍼를 올려 운반할 수 있고 각 모서리에 위치한 지퍼를 열기만 하면 바로 피크닉 매트로 사용 가능합니다.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피크닉 용품의 '운반'에 '지퍼'라는 매체라는 개념을 더하여 유용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형태를 구체화하여 매트백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메이커 선생님들의 조언과 작품에 대한 애정이 담긴 협업과정이 있었습니다.

클린마스크
CM (CLEAN MASK)

메이커 여운옥
디자이너 한윤경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닌, 착용자의 개성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입 모양이 잘 보여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마스크 주머니를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마스크를 꺼내고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이커, 오현옥 패턴 선생님, 여운옥 제작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콜라보 작업을 통해, 디자인 기획이 실제 제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퍼백
ZIPPERBAG

메이커 여운옥
디자이너 신수현

'평면적인 그래픽 요소에 입체적 기능을 추가한다면?' 지퍼백의 형태는 이러한 디자이너의 질문에서 시작된 조형 실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방의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은 선들은 지퍼로 만들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겉감과 안감의 소재는 타이벡으로, 마치 종이처럼 보이지만 잘 찢어지지 않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직접 디자인한 가방에, 메이커 여운옥 선생님의 봉제와 오현옥 선생님의 패턴이 더해져 구현된 작품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제품 구조 및 제작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동대문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새로운 소재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촉각 자극 포스터 시리즈
TACTILE STIMULI POSTER SERIES

메이커 여운옥
디자이너 정영신

산업디자인이나 패션디자인과는 달리 시각디자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종이 재질 외에 촉각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패션 분야에서 사용하는 패브릭의 촉감에 집중하고, 시각과 촉각을 모두 사용하는 그래픽을 사용하여 4개의 포스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포스터는 표면처리의 단계와 요철의 정도를 고려하여 패브릭의 종류, 프린트의 유형, 자수의 적용 유무를 선택하여 제작되었으며, 그래픽에 대한 아이디어는 헬러(Heller)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능동적 촉각실험에서 기인합니다. 시각 중심의 디자인의 영역에서 촉각이라는 감각을 융합해 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노즈아트
NOSART

메이커 최유진
디자이너 김숙현

그래픽을 입힌 노즈워크 아이템인 동시에 마치 아트 갤러리에 놓여 있을 것 같은 하나의 패브릭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노즈워크 제품이 가진 특징인 원색 또는 파스텔 컬러에서 벗어나 고급스러운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여 조금은 색다른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동대문 창신 아지트에서 7번의 만남을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는 '원행을묘정리의궤' 제품으로 발전하였고, 원단 선택과 색상 선택 모두 메이커 최유진 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제작자의 철저한 장인정신이 결합해 완성된 작품입니다.

떨어져 나간 것, 그리고 남겨진 것들
DETACHED, AND LEFTOVER THINGS

메이커 최유진
디자이너 위은혜

본 작업은 옷을 만들고 난 후, 버려지는 천이 디자이너와 장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무엇을 남기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체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며, 만지고 묻혀 놓은 역사와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것, 그리고 남겨진 것들'은 메이커 최유진 선생님과의 인터뷰 진행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옷의 패턴 세 가지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제품의 제작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제작자는 그에 따라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보완, 절충하여 결국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중잔치 패턴
The Court Banquet and Patterns

메이커 김선숙
디자이너 진현서

조선 궁중 잔치를 그린 궁중연향도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실생활에 적용시켜보고자 하였습니다. 궁중연향도가 가지고 있는 판화의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옛 그림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연향도병에서 나타나는 좌우대칭의 구조와 궁궐을 프레임처럼 사용하여 각 요소들이 강조된 패치 워크이자 패턴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궁중연향은 왕실의 축제를 일컫기 때문에 주로 꽃 장식인 채화와 춤추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궁중연향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제작자 김선숙 선생님의 아이디어인, 궁궐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러나 기존의 한복들과는 다른 패턴을 소유한 허리치마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트윌리 스카프를 제작하여 연향도 패턴을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아레
MOIRE

메이커 양재령
디자이너 고다현

무아레 패턴이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모양이 여러 번 중첩될 때, 주기의 차이에 따라 시각적으로 만들어지는 줄무늬를 말합니다. 이 패턴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큰 시각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픽으로, 무아레 패턴이 적용된 옷을 입는 사람의 신체 볼륨이나 미세한 동세에 따라 그래픽이 변화합니다. 소재로는 투명한 오간자(Organza)와 불투명한 폴리에스테르 소재에 각각 프린트한 일정한 간격의 선들을 이중으로 중첩시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자와 디자이너는 제작과정에서 무아레 패턴의 부드럽고 묘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선의 굵기와 간격, 천의 폭과 너비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율하였으며, 절제된 단아함과 무아레 패턴의 시각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업의 결과, 무아레 패턴의 특성이 잘 표현된, 메이커와 디자이너의 취향이 잘 드러난 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DDP 디자인 페어 Fair

매출 향상을 꿈꾸는
소상공인과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가 만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디자인의 모든 것

DDP DESIGN FAIR

소상공인 X 디자이너

[만남의 장]
소상공인 X 디자이너
DDP 살림터1층
2019.07.04-14

[DDP디자인페어]
소상공인 X 디자이너
DDP 알림2관
2019.12.04-08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dpdesignfair.or.kr

I SEOUL U

DDP디자인페어 프로젝트 진행보고

DDP Design Fair
The project report

DDP디자인페어
프로젝트 개요

DDP Design Fair
The project summary

사업장소

DDP디자인페어 [본페어] : DDP알림2관 및 국제회의장

DDP디자인페어 [프리페어 - 만남의 장] : DDP살림터 1층

행사기간

DDP디자인페어 [본페어] : 2019. 12. 4(수) ~ 12. 8(일)

DDP디자인페어 [프리페어 - 만남의 장] : 2019. 7. 4(목) ~ 7. 14(일)

목표

· 서울도심의 낙후된 거점산업생태계를 DDP 중심으로 활성화

· 디자인을 접목하여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실현

지역제조상인과 디자이너 매칭을 통한 오리지널 디자인제품 개발

제조산업 경쟁력 향상, 디자이너에게 신제품 개발 기회 제공

청년 및 1인 창업자에게 신제품 런칭 기회 제공을 통한 창업기회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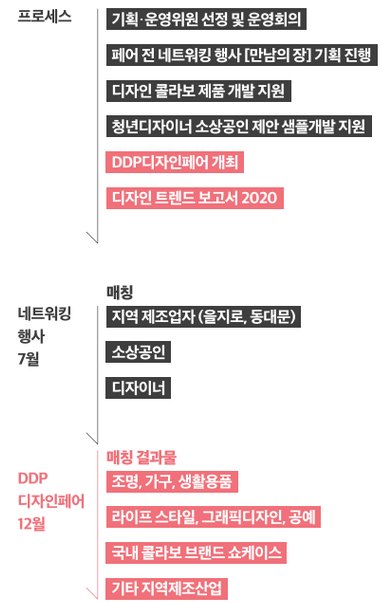
청년 디자인일자리 창출

디자인페어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 디자이너에게 프로모션 기회 제공

국내외 판로 개척, 지역경제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

글로벌 디자인트렌드 및 디자인제품 정보 제공

서울시민의 디자인라이프스타일 제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



DDP디자인페어
기대효과 및 추진내용

DDP Design Fair:
Expected effect and project contents

기대효과

동대문, DDP, 을지로 거점 최대의 '디자인 비즈니스 클러스터'구축으로

도심제조산업 및 디자인경쟁 활성화에 기여

배경

DDP 주변 도심제조산업 경제적 활성화 지원 필요

청년창업 증가하나 디자인생태계와 상생 미흡

사업내용	지역상인 디자인 콜라보로 오리지널 디자인 지원	청년디자이너 신제품 런칭으로 창업 기회 창출	국내 디자이너에게 제품 개발, 프로모션 기회 제공	글로벌 디자인브랜드 및 라이프스타일 제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및 1인 창업자 디자인일자리 창출	디자이너 국내외 판로 개척	시민 대상 디자인정보 및 트렌드 제공
실행방안	협업 네트워크 구축 매칭 > 시제품 > 전시 > 양산 > 판매	신진디자이너 선정 창업컨설팅지원행사 프로토타입개발지원	소규모디자인기업 디자인단체 협업	Salon del Mobile MOU 협력
협력체계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생협의체 구성	서울소재 13개 디자인대학 MOU 통한 관학협의체	협력프로젝트진행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등 27개 단체	EURO LUCE 세계조명박람회
중장기 계획	2019 -	2020 - 소상공인 매출 증대	2021 - 청년 일자리 창출 / 국내외 판로 개척	2022 - 디자인 트렌드 제공

도심제조산업과 DDP 상호협력

을지로 6대 사업 (1,500개) : 조명(14.6%) / 가구(8.0%) / 타일(9.7%) / 공구(36.8%) / 조각(25.1%) / 미싱(5.8%)

을지로 특화업종 관련 실태조사(서울특별시 중구청, 2015.5)

DDP디자인페어
협력체계

DDP Design Fair
A cooperative system

DDP디자인페어
성과

DDP Design Fair:
The performance

‘프리페어, 만남의 장’

지역제조상인과 디자이너 매칭을 위한
오리지널 디자인제품 전시
매칭의 장 '만남의 장' 개최(DDP디자인페어의 프리페어)

일시 / 장소
2019. 7. 4(목) ~ 7. 14(일) [11일간] / DDP살림터 1층

내용
상호 매칭을 희망하는 디자이너와 을지로·동대문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전시(매칭 현장 접수처)

온라인 플랫폼 개설 및 상시 접수
ddpdesignfair.or.kr

‘본페어,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지역제조상인과 디자이너의 개발 제품
런칭쇼
런칭쇼 ‘소상공인 X 디자이너’ 개최(DDP디자인페어의 본페어)

일시 / 장소
2019. 12. 4(수) ~ 12. 8(일) [5일간] / DDP알림2관, 국제회의장

내용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런칭쇼,
국내 콜라보레이션 기업 쇼케이스,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전시

DDP디자인페어 금상, 은상, 특별상 시상식 개최
소상공인 X 디자이너를 위한 포럼 개최

홍보결과

언론보도 : 총 41개 매체, 기사보도 총 52건

보도날짜	제목	보도매체	
190627	서울디자인재단, 'DDP디자인페어-소상공인×디자이너' 개최	온라인	스포츠서울
190627	서울디자인재단,'DDP디자인페어- 소상공인×디자이너' 참가자 모집	매거진	디자인정글
190710	서울디자인재단, 'DDP디자인페어 - 소상공인 x 디자이너'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통신사	내외통신
190628	소상공인 디자이너협업…동대문 부활 날갯짓	통신사	내외통신
190709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만나다. 'DDP디자인페어 만남의 장' 개막	경제지	매일경제 (지면)
190710	'DDP디자인페어' 도심 제조 산업 활성화와 디자인 산업의 일자리 창출	온라인	컬처타임즈
191205	수백만원 수입 조명 안부럽다, 조명시장 놀래킨 '을지로의 힘'	종합일간	중앙일보
191205	DDP에 소상공인 디자인 제품 보러오세요	종합일간	경향신문 (지면)
191204	서울 소상공인-청년 디자이너, 신제품 개발…4~8일 'DDP디자인페어'	방송	BBS NEWS
191213	Euljiro's lighting industry seeks originality	종합일간	코리아타임스 (지면)
191213	Master mechanical engineer's speaker wears young design	종합일간	코리아타임스 (지면)

DDP디자인페어
추진과정

DDP Design Fair
Process of promotion

DDP디자인페어 사업설명회, 참여방안 및 협력방안 논의

상생협력회의단 구성, 협력회의 진행 (2019년 6월 12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최경란), 중구청도심산업팀장(이상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한창훈),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기획팀(임영주),
서울산업진흥원과장(임인순), 을지로조명협의체회장(김기화), 을지로가구협회회장(박영택), 을지로타일상인협우회회장(이관영),
세운산업지원센터소장(박주용), 동국대학교청년기업가대표(민관석)

DDP디자인페어 '만남의 장' 전시현장

을지로·동대문 지역제조 소상공인 제품(45개), 디자이너 샘플(31개) 전시 및 매칭 워크숍 진행

· 을지로·동대문 지역제조 소상공인(45팀) : 타일도기(3), 인쇄(3), 가구(8), 조명(15), 청년창업자 New산업_세운상가(16)
· 디자이너 포토폴리오 및 샘플제품 전시(31팀)
· DDP디자인페어 1차 워크숍(2019.7.14) / DDP디자인페어 2차 워크숍(2019.8.9)

DDP디자인페어 '본페어' 전시현장

콜라보레이션 개발 제품(60여 개), 대학생 작품(50여 개), 국내 콜라보레이션 선행 기업 제품(10여 개) 전시

·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43팀) : 가구(8), 조명(11), 생활용품(10), 라이프스타일(6), 그래픽(4), 공예(4)
· 더 쇼케이스(2팀) : AGO, 4WORK
·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전시(44팀) : 가구디자인(5), 조명디자인(13), 그래픽디자인(6), 패션디자인(8), 제품디자인(12)

DDP디자인페어 '본페어' 시상식, 포럼 행사

디자이너, 소상공인, 대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DP디자인페어 시상식, 포럼 행사 개최

서울시 행정1부시장(강태웅),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박기재), 서울 중구청 구청장(서양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최경란),
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 본부장(최선일), 신한카드 부사장(문동건), 네이버 디자인프레스 대표이사(이민형), 한국디자인학회 회장(고영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회장(안장원),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이인기),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홍승대), 동대문미래재단 국장(백찬기)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회장(박중현), 을지로조명상가협의체회장(김기화), 한국조명유통조합조합장(이우복), 을지로타일상인협우회회장(이관영) 외

DDP디자인페어, 함께한 사람들

DDP Design Fair
All The People Together

DDP Design Fair
Advisory Committee

김상훈
Sang Hoon Kim

· (주) JAFoam 대표
· sanghoonkim_atelier 운영
· 현 뉴욕 'Cristina Grajales Gallery' 작가
· KIDP 차세대 디자인 리더 선정
· 2010 미국 I.D Design Review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상 수상

오세환
Oh Sehwan

· 2007 밀라노 가구 박람회 'Young & Design 2007' 수상
· 미국 현대 미술관 MoMA의 'Turtle Clip Holder' 디자인
· 2018 By을지로 총괄 디렉터
· 2018 4work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
· 2018 파리 메종 오브제 전시(By 을지로)

정 수
Choung Soo

· 디오리진(d-ORIGIN) 대표
· 서울디자인컨설턴트(서울디자인재단)
· 2017 디자인 융합벤처창업학교 멘토링 및 심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차세대 디자인 리더 선정 심사위원(한국디자인진흥원)
· 2015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공로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 2015 iF STUDENT AWARD 심사위원(Germany)
· 2014 iF concept design award 심사위원(Germany)

심대기
Shim Daeki

· 대기앤준(DAEKI & JUN)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공동대표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 2017 독일 Reddot Award 그랑프리 수상
· 국제 디자인 어워드 100여 회 수상
· 2015, 2017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큐레이터

정 미
Jeong Mee

· (주)이온SLD 대표이사
· 전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
· 서울시좋은빛위원회위원
· 서울시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위원
· 2015-2016 을지로 라이트웨이 큐레이터
· 2018 darc Award seconplace, LIT Award winner 수상
· 2018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공로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한경하
Han Kyung Ha

· (주)우퍼디자인 대표이사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부회장
· KDM운영위원
· 2018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혁신위원
· 대한민국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 세계3대 디자인어워드 수상 (독일 IF Design Award, 독일 Reddot Award, 미국 IDEA)

DDP디자인페어
‘프리페어, 만남의 장’ 참가자

DDP Design Fair
‘Pre-Fair, Meeting Place’ Participants

[소상공인 X 청년창업 : 서울 경제의 허리와 머리]

삼우세라믹스
ceo@samwoocm.com

디플랜퍼니처
dplan22@daum.net

동현조명
lottee1004@naver.com

아나츠
sales@anatz.com

한일타일
hanil@hanmail.net

K오션퍼니처
k.ocean@hanmail.net

디자인점빵
oldpress@naver.com

새한초음파산업
114jm@saehansonic.co.kr

한일도기사
01198988010@hanmail.net

기아조명
kia6891@hanmail.net

가온인쇄공방
gaonpress@naver.com

에이브이컴
choi@avcom.co.kr

신우 모자이크
logos-jhs@hanmail.net

Allux
modern7942@naver.com

후니프린팅
hoonida@naver.com

에어랩스
jh.seo@greenify.kr

(주)피카소퍼니처
picasso5683@hanmail.net

(주)파로라이팅
faro6891@hanmail.net

바이오랩서울
astronoize@tideinstitute.org

에이플래닛
qkreodud1234@naver.com

쎄누
1006@cenu.co.kr

유토조명
ozl888@hanmail.net

차산전력(차전자)
chamecha@naver.com

팔
sssmile88@naver.com

대도인테리어가구
daedogagu@hanmail.net

썬조명
sun273774@hanmail.net

기묘제작소
samilhelp@gmail.com

Meplay
ksw0876@naver.com

이탈리아가구
lyt4080@naver.com

영광조명
yglux@naver.com

멜로디캣
sunmoon011@hotmail.com

무아랩주식회사
jeon1082@naver.com

파크퍼니처
dadopark@hanmail.net

모던라이팅
modern7942@naver.com

아트엘이디
voicechip@naver.com

Knot lab(노트랩)
robtjl@hanmail.net

하움데코
nom9797@hanmailnet

조용주조명
jjp323@hanmail.net

워치테크
wtstlab@naver.com

세운공장
sales@anatz.com

[디자이너 존 : 디자인 해결사]

크래프트브로컴퍼니
info@craftbrocompany.co.kr

논픽션홈
jo@flatm.kr

해턴 디자인 스튜디오
hattern.official@gmail.com

희
dngml1994@hanmail.net

픽트스튜디오
fictstudio@gmail.com

일삼일와트
admin@131watt.com

스튜디오 파스티나
info@pastinaisgood.com

홍석표
stoneticket@naver.com

김지윤스튜디오
info@jiyounkim.com

아르데
mail@arde.dk

굴라 ·피규에라 스튜디오
info@goulafiguera.com

오트오트
ottottcraft@gmail.com

페시스튜디오
pesidesign@gmail.com

제로랩
zero-lab@zero-lab.co.kr

마티즈
hola@matizbarcelona.com

멀릭
designmerlic@gmail.com

파운드/파운디드
info@foundfounded.com

곽종범스튜디오
pokzucute@naver.com

아뜰리에손
sohn.seoul@gmail.com

허진원
dcentor@naver.com

글로리홀 라이트 세일즈
glory.hole.hy@gmail.com

어보브스튜디오
contact@above.studio

둥글게둥글게
kjchoi02@naver.com

324 디자인스튜디오
dnr1958@naver.com

강영민스튜디오
youngmiin.k@gmail.com

티엘
info@tiel.ch

사물공작소
tapist5@naver.com

아몬드스튜디오
almondstudio.co@gmail.com

홍은주와 김형재
delikit@gmail.com

한승엽
tmdduq7627@gmail.com

DDP디자인페어
‘본페어,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참가자

DDP Design Fair
‘Fair, Small Business X Designer’ Participants

[소상공인 X 디자이너 : 처음 만남 그리고 이후 이야기들]

(주)피카소퍼니처
picasso5683@hanmail.net
×
고정호스튜디오
jhk917350@gmail.com

바이오랩서울
astronoize@tideinstitute.org
×
김균철
dean5039@naver.com

친절한목수들
kkumadoal95@naver.com
×
호우디자인
bemropp@naver.com

디플랜퍼니처
dplan22@daum.net
×
피엠지스튜디오
peaceinamug@gmail.com

탐킨
tamken@naver.com
×
페시스튜디오
pesidesign@gmail.com

쎄누
1006@cenu.co.kr
×
디글라우
ilsang1999@naver.com

(주)유엔디
ady@dauning.com
×
김지윤스튜디오
info@jiyounkim.com

(주)유엔디
ady@dauning.com
×
스튜디오 파스티나
info@pastinaisgood.com

모던라이팅
modern7942@naver.com
×
크래프트콤바인
info@craftcombine.com

파로라이팅
faro6891@hanmail.net
×
이지스튜디오
info@yoonilseop.com

유토조명
ozl888@hanmail.net
×
프래그
info@prag-studio.com

영광조명
yklux@naver.com
×
심승연
ssy@seungyeonshim.com

대영라이팅
dylighting@naver.com
×
곽종범스튜디오
pokzucute@naver.com

하나조명
hana9290@naver.com
×
류종대
studioyd@naver.com

썬조명
sun273774@hanmail.net
×
아뜰리에손
sohn.seoul@gmail.com

기아조명
kia6891@hanmail.net
×
프롬헨스
kyuhyun@fromhence.com

조명보라
gukbo123@naver.com
×
페시스튜디오
pesidesign@gmail.com

포커스조명
focuslighting@naver.com
×
양정모스튜디오
info@jungmoyang.com

대청조명
dae1355@naver.com
×
스튜디오하이브
studiohivvv@gmail.com

스노우볼제작소 만들
snowmandeul@naver.com
×
팔스튜디오
pal_studio@naver.com

드쎄로
decero@naver.com
×
아몬드스튜디오
almondstudio.co@gmail.com

레드미티어디자인
mail@redmeteor.co
×
메타포디자인스튜디오
metafaux@gmail.com

기드온소닉
gideonsonic@naver.com
×
에이치에스제곱
hs2studio@naver.com

바이오랩서울
astronoize@tideinstitute.org
×
크래프트콤바인
info@craftcombine.com

랩.크리트
lab.crete@gmal.com
×
픽트스튜디오
fictstudio@gmail.com

가화
gahwa3345@naver.com
×
파운드/다운디드
info@foundfounded.com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
gojae8@naver.com
×
디글라우
ilsang1999@naver.com

드로잉엣홈
drawingathome@gmail.com
×
오디너리피플
ordinarypeople.kr@gmail.com

난나비자수
nannavi_emb@daum.net
×
에어앤센트스튜디오
wonhyang@gmail.com

모비주
noblediamond@naver.com
×
바이림스튜디오
imalien@naver.com

진저아이웨어
studiogngr@naver.com
×
컵스페이스
fdjuju@nate.com

진저아이웨어
studiogngr@naver.com
×
티엘
info@tiel.ch

커먼플래닛
515wonk@naver.com
×
허밍제이
oliveon@naver.com

배키맴
b312312@naver.com
×
청춘고백
gypog5122@naver.com

해연식품
c2c34@hanmail.net
×
더블랙
theblack7@naver.com

후니프린팅
hoonida@naver.com
×
김쌀네가게
skimsarah@hanmail.net

야옹서가
aponian@daum.net
×
일삼일와트
admin@131watt.com

워치테크
wtstlab@naver.com
×
팡팡팡그래픽실험실
pangpangpang_work@naver.com

노트랩
robtjl@hanmail.net
×
250디자인
lee@250.or.kr

멜로디캣
melody_cat@naver.com
×
바이림스튜디오
imalien@naver.com

날:DAY
hannari0514@gmail.com
×
박민제
pppack39@naver.com

노트랩
robtjl@hanmail.net
×
어보브스튜디오
contact@above.studio

감성공업
tendustry@naver.com
×
오렌지도어
bee4star@naver.com

DDP디자인페어
‘본페어,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참가자

DDP Design Fair
‘Fair, Small Business X Designer’ Participants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 디자인을 입히다]

제이제이 프로젝트
zoo0519@naver.co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더덕
midodok7@gmail.co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소형·조예원
thgud0720@naver.co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영진
92ghkddudwls@naver.co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썸
halgus159@naver.com
한성대학교

전통문양
rnfh1175@naver.com
한성대학교

유수진
giddls792@naver.com
세종대학교

라이씨
ohhs312@naver.com
상명대학교

파랑
uferndonner@naver.com
숙명여자대학교

씨드
jok0803@naver.com
숙명여자대학교

민유정
muj0521@naver.co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효준
blacknet7202@gmail.com
서울시립대학교

무아
alswnsmj200@naver.com
상명대학교

컨택트
wunderkind1124@gmail.com
상명대학교

솜둥
ssom0203@naver.com
서울시립대학교

이혜인
hop.haein@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이희승
heeseung@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수민
suminl1234@naver.com
세종대학교

THE 나은
dekeb0790@gmail.com
성신여자대학교

지오산스&디지털 마스크
leestefan23@gmail.com
홍익대학교

글리치 수트
sanghichickenburger@gmail.com
홍익대학교

조이나래
dlalwl0408@naver.com
성신여자대학교

키즈몽
dv_design@naver.com
인덕대학교

퐁듀오
sngji0604@naver.com
성신여자대학교

덕이와 순이의 슈퍼마켓
hansu0519@naver.com
덕성여자대학교

빈
tjgml4649@naver.com
동덕여자대학교

리프 팩토리
hayun100@naver.com
동덕여자대학교

영현&정현
like64@naver.com
서울시립대학교

피스피스
dms3787@naver.com
동덕여자대학교

BWG
oplue@naver.com
동덕여자대학교

A.P.OB
jh_you95@naver.com
동덕여자대학교

늘
eunji6080@gmail.com
상명대학교

이스케이프
jhbaek1004@naver.com
한성대학교

김리준
krijun@naver.com
서울시립대학교

린정
joyce118@naver.com
인덕대학교

소여
irises2000211@gmail.com
서울대학교

디넷
shjw024@gmail.com
숙명여자대학교

모듈러
pjy752@naver.com
한성대학교

부오
woo81555@naver.com
세종대학교

세결
ryung9909@naver.com
세종대학교

청랑
minwoowpdlf5@naver.com
숙명여자대학교

앙부일구
garangbee96@icloud.com
숙명여자대학교

팀 트웰브
masicclow@naver.com
서울시립대학교

포 사이트
nsh13579@naver.com
세종대학교

DDP디자인페어 [서울라이트 축제] 디자인마켓

DDP
디자인
페어Fair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디자인의 모든 것
조명 · 가구 · 생활용품
그래픽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 공예
주최·주관 Organizer
I·SEOUL·U
DDP 알림2관,
국제회의장
2019. 12. 04 – 08
DDP
디자인
페어Fair

PPP
인자원
페어Fair

DDP 디자인 페어 Fair

소상공인 X 디자이너

스몰비즈니스 디자인 트렌드 2020
소상공인을 위한 [DDP디자인페어2019] 아카이브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인 최경란
발행처 (재)서울디자인재단

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재단
www.seouldesign.or.kr
www.ddpdesignfair.or.kr

기획연구진 **(재)서울디자인재단**
사업본부 최구환본부장
디자인사업팀
권희대팀장
정효순책임
정낙훈선임

(주)얼트씨
진흥왕 - 총괄, 전시기획
정인영 - 총괄지원
김지연 - 참여 디자인전문회사 커뮤니케이션
임현민 - 참여 소상공인 커뮤니케이션
황규성 - 전시연출
민지원 - 전시제작
이재희 - 해외 디자인 트렌드 캐스팅
김희정 - 행정지원

후원·협력 **중구청, 살롱 드 모빌레. 밀라노,**
신한카드, 디자인프레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산업진흥원
세운협업지원센터, 을지로조명협의회, 을지로타일상인협우회, 을지로가구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서울소재 디자인대학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청년디자이너 멘토
강현대, 곽철안, 나지영, 이정아(상명대학교 생활예술학과교수), 김병수(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교수), 김진성(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과교수),
김해솔(덕성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교수), 김흥렬(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교수), 안병학(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교수),
이상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교수), 이장섭(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교수), 이혜선(이화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교수),
장선희(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교수), 정종찬(한성대학교 제품디자인과교수), 홍지원(인덕대학교 시각디자인과교수)